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朱 亨 根

디지털 時代의 靑少年 經濟教育의 方向과 改善方案에 關한 研究

A study on the direction and an improvement plan of
the youth economics education in the Digital Age

2005年

漢城大學校 디지털中小企業大學院

디지털中小企業經營 專攻

조 영 관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朱 亨 根

디지털 時代의 靑少年 經濟敎育의 方向과 改善方案에 關한 研究

A study on the direction and an improvement plan of
the youth economics education in the Digital Age

위 論文을 經營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5年 6 月 日

漢城大學校 디지털中小企業大學院

디지털中小企業經營 專攻

조 영 관

조영관의 經營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05年 6月 日

審査委員長

審査委員

審査委員

목 차

국문요약	V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향	2
제2장. 청소년 경제교육의 고찰	4
제1절. 청소년의 의미와 경제교육	4
제2절. 경제 환경변화와 경제교육의 필요성	9
제3절. 청소년 경제교육의 현황	17
제3장. 실태분석	21
제1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21
제2절.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조사	26
제3절. 교사 경제교육의 실태조사	33
제4절. 실태분석들의 시사점	41
제4장. 청소년 경제교육의 방향과 개선방안	42
제1절. 청소년 경제교육의 과제	42
제2절. 주요국가의 청소년프로그램	45
제3절. 청소년 경제교육 전문교사 양성	50

제5장. 디지털 시대의 매스미디어 적용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59
제1절. 디지털 시대의 경제교육 및 활용	59
제2절. 청소년 경제교육과 매스미디어에 대한 활용	62
제3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교육	67
제4절. 청소년 미디어 교육의 방향과 제언	71
 제6장. 결론 및 제언	 73
별 첨	76
참고문헌	81
홈페이지	85
Abstract	86

표 목 차

<표2-1> 고등학생들의 특성별 경제 이해력 점수	7
<표2-2> 고등학생들의 경제의 이해도, 응용력 분포도	7
<표2-3> 초등학교 경제교육 관련 내용 요소	18
<표2-4> 중학교 경제교육 관련 내용	19
<표2-5> 고등학교 생활경제의 내용	20
<표3-1> 중고생의 장래 직업희망 순위	27
<표3-2> 경제관련 지식의 습득경로	28
<표3-3> 학교에서 경제지식과 현실생활과의 밀접도	29
<표3-4> 사업의 지식을 습득한 경험여부	30
<표3-5> 남녀 계열별 사업관련 지식습득 경로	30
<표4-1> 일자리 변동성	52

그 립 목 차

<그림3-1> 용돈을 받는 방법	22
<그림3-2> 용돈의 정도	22
<그림3-3> 용돈에 대한 만족도	23
<그림3-4> 부족한 용돈의 해결방법	23
<그림3-5> 한달의 저축 정도	24
<그림3-6> 저축할 때 이용 방법	25
<그림3-7> 교사들의 경제교육 요구	34
<그림3-8> 교육시간에 대한 설문	34
<그림3-9> 현행 교과서에서의 경제 분야 비중	35
<그림3-10> 경제교육에 있어서 교사들의 애로사항	36
<그림3-11> 교사들의 경제교육 관련된 자료 보유 의견	37
<그림3-12> 경제교육과 관련된 효과적 자료	38
<그림3-13> 현재 경제관련 교육 보유자료	38
<그림3-14> 교사들에 대한 경제교육 실태	39
<그림3-15> 경제교육 연수에 대한 교사의 참여의식	40

국문 요약

본 논문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제교육을 좀더 효과적이며 내실 있는 교육방법을 찾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벌써부터 진행되고 있는 세계적 무한경쟁시대(無限競爭時代)에 주역이 되어야 할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경제 지식과 마인드를 심어줌으로써 미래지향적이고 세계주도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잡아 주어야겠다는 것이며,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내실 있는 방법인가를 연구해 보았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에서의 경제교육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고,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경제교육의 방향과 활성화에 시사점을 두었으며 특히 디지털 매스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교육방법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 경제교육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실업자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청소년경제교육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한다. 청년실업자를 청소년 경제교육에 관한 skill 교육을 통해 전문경제교육자로 양성한 후 현장에 투입하여 활용하는 방안이다. 현재 학교교육에서의 경제교육을 전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의 부재를 청년실업자를 바탕으로 정책적, 민간기관의 지원을 바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경제교육자를 현장에서 활용 하는 것이다.

둘째, 청소년들의 환경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디지털 매스미디어를 경제교육의 도구로 활용하는 웹 활용교육(WBI)이 되어야 한다. 디지털을 이용한 경제교육의 매력은 매스미디어에 대한 청소년들의 거부감이

없다는데 있다. 그리고 웹 활용 교육(WBI)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인터넷과 홈페이지 그리고 다양한 경제교육과 학교 수업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무한 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바람직한 경제 교육을 통하여, 이들을 미래 지향적이고 세계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는 인재로 성장 시켜야 할 것이다. 어려서부터 올바른 경제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장래의 세계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길러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교육의 취약성이나 경제교육의 강화 필요성은 최근에 사회 문제가 되었던 신용불량자나 가계파산자에 관한 간접적인 통계로 조사 되었다.¹⁾ 2002년 말 기준으로 260만 명이었던 개인 신용불량자 수는 2003년에도 증가 추세가 수그러들지 않아 4월에 300만 명을 훌쩍 넘어서더니 10월에는 360만 명을 기록하였다. 이렇게 개인 신용불량자 수가 증가하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연령별로 20대 이하의 신용불량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경제의식은 발전해가는 디지털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더구나 이들 청소년들에 대한 경제 교육환경과 제도적 장치의 미비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감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래의 경제활동 계층인 청소년에 대한 경제교육의 중요성과 청소년 경제교육의 현 상태 및 문제점, 그리고 청소년 경제교육전문가의 육성을 통해 청년실업의 해소 및 청소년 경제교육의 효과적 방안 그리고 디지털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청소년 경제교육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중점을 두었다.

1) 신용불량제도는 2005년4월28일 폐지(재정경제부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연합뉴스 5.2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향

1. 연구 대상과 방향

본 연구는 청소년들을 경제교육의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설문 조사는 다양한 국내의 교육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의 경제교육의 정도와 이에 따른 경제교육의 환경과 여건을 조사해보고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청소년들의 사회적 의식, 특히 경제에 대한 의식조사를 중요한 연구과제로 삼았으며, 이러한 설문지를 통한 연구 과제를 해석함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의식에 과연 경제교육 성과가 남아있으며, 또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는지에 대하여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또 청소년 경제교육의 필요성과 주변 교육환경의 조성, 예로써 선진국의 청소년 경제교육 사례를 모아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 경제교육의 방안을 정리해보고, 또한 이러한 청소년들의 교육에 투입할 수 있는 청년실업자들을 청소년 경제교육전문가로 만들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효과적인 청소년 경제교육을 위해 사용가능한 디지털 매스미디어의 활용방안을 연구방향으로 설정 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 있어서의 실태조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 조사이다. 각 설문지의 내용은 돈의 활용과 청소년들의 저축 현황, 그리고 경제와 관련된 일련의 의식조사를 통하여 청소년들 생활 속에서의 경제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외부적으로 청소년들에게 행해진 경제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해 보았다. 그리고 국내 조사만으로 미흡한 점은 해외의 사례와 실태조사를 통하여 청소년 경제교육의 각 주제에 알맞은 연구가 되도록 하였다.

또 중·고등학생의 경제와 관련된 지식의 정도와 이해를 묻는 실태조사에

는 삼성경제연구소 “중고생 경제인식 조사”의 선행연구 자료를 인용하였으며, 초등학생들의 경제와 관련된 지식의 정도와 이해를 묻는 실태조사는 초등경제교육연구소와 공동으로 현직 초등학교 교사들의 연구모임인 서울시초등사회과교육연구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초등교사들이 생각하는 현 교육과정 내의 경제교육 및 초등학생들의 경제에 대한 인식을 유추하여 교육환경에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전체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 논문은 각각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1장은 서론으로 본 논문의 연구목적과 연구의 범위 및 방향을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청소년의 의미와 경제교육, 경제교육의 필요성과 현황에 대해 개괄적인 고찰을 하였다

제3장에서는 실태분석을 통하여 초, 중, 고 학생들과 교사들의 경제의식을 조사하였다.

제4장에서는 청년실업자들을 활용을 통한 청소년 경제교육전문가 양성방안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디지털을 이용한 경제교육 활용 방안을 살펴보았다.

제6장에서는 분석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도출하였다.

제 2 장. 청소년 경제교육의 고찰

제1절. 청소년의 의미와 경제교육

1. 청소년 경제교육의 의미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청소년은 자신의 능력개발과 건전한 가치관의 확립에 힘쓰고 가정·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처럼 청소년에 대한 명제는 우리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의미이다. 하지만, 경제교육을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다. 아마 100명의 학자에게 질문한다면, 101가지 대답이 나올 것이다. 저마다 자기 입장에서, 그리고 자기의 주된 관심사항에 기초해서 다양하게 정의할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교육을 정의하기에 앞서 먼저 경제학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경제학의 정의 역시 각양각색이다. 웹스터(Webster) 사전에 따르면, 경제학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분배, 소비에 대한 서술 및 분석과 관련된 사회과학"으로 정의되어 있다. 경제학자 Buchholz는 경제학을 "최선의 선택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학문"이라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경제교육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은 다음과 같은 Keynes(1930)의 정의라 할 수 있다.

경제이론은 정책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합의된 결론들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경제이론은 하나의 원칙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방법이며, 마음의 도구이자, 사고하는 기술이고, 사람들이 올바른 결론을 도출하도록 도와준다. Keynes의 정의에 따르면, 교사가 경제 개념을 학생들에게 단순히 전달하고 설명하는 것은 진정한 경제교육이 아니다. 물론 경제 개념에 대한 이해

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경제학의 원리가 올바른 선택 또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학생들이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학생들이 개인 또는 사회의 경제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경제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즉 경제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에게 경제학의 ‘방법’(method)을 가르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Buckles(1987)는 자신의 경험에 의하면, 교사들은 자신들이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 주된 이유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경제 개념을 전달하고 설명하는 데에서 그치고 있을 뿐, 경제적인 사고방식이나 경제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우리나라 교사들 역시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다.

경제교육은 논리적이고 신중한 사고를 하는 훈련이다. 학생들이 경제 상황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 그리고 문제들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얻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경제교육 더 나아가 학교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이러한 능력을 지닌 학생들은 지식을 갖춘 소비자, 책임감 있는 시민,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 현명하고 알뜰한 저축자 및 투자자, 유능한 의사결정자, 그리고 글로벌 경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국제인으로 탄생하게 된다²⁾.

경제교육(economic education)과 관련해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투자교육(investment education) 또는 투자자교육 등이다. 이 외에도 소비자 관련 전공자들이나 단체들은 소비자교육(consumer education)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교육은 이들 모든 교육의 기초가 되며,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금융교육은 기본 경제 개념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수입, 지출, 저축, 대출, 금리, 자산관리, 신용카드, 개인파산, 통화정책 등과 같은 금융 관련 내용에 초점을 두고 가르침으로써, 돈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기

2) Venkatesan, M.(1966), "Experimental Study of Consumer Conformity and Independence",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위한 교육이다. 그리고 투자교육은 주식이나 채권처럼 투자 관련 상품에 대한 지식이나 투자이론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이다. 투자교육은 금융교육의 기초 위에서 가능하고 또 이루어져야 하며, 금융교육은 다시 경제교육의 기초 위에서 가능하고 또 이루어져야 효과적이다. 즉 각각 이전 단계의 기본 지식이 없다면 투자교육이나 금융교육은 사상누각이 되고 만다. 소비자교육은 일상생활에서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한 교육을 추구한다. 소비자교육은 의사결정(의사결정 요인 및 과정), 자원관리(자산 구입 및 관리, 자원보전), 시민참가(소비자권리, 보호, 참여) 등의 다양한 내용을 포함한다.

2. 경제교육의 현황

(1) 만족스럽지 못한 경제 이해력 수준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2004)가 우리나라 고등학생 2,6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 이해력 <표 2-1>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100점 만점에 평균 55.7점의 저조한 점수를 기록하였다. 점수 분포별로 보면, [표 2-1]에서 알 수 있듯이 80점 이상의 만족할 만한 점수를 얻은 학생들이 8.1%인데 비해, 19점 이하의 점수를 얻은 학생들이 1.2%, 20점대가 6.4%, 30점대가 11.6%나 되었다. 만약 일반 시험에서처럼 60점미만을 낙제로 간주한다면, 전체 학생의 절반이 넘는 52.4%가 F 학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경제 지식부족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학생 특성별로 경제 이해력 점수를 비교해 보면,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43.9로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평균 57.4점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사회에 일찍 진출하는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경제 이해력 수준 향상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1> 고등학생들의 특성별 경제 이해력 점수

성별		학년별			학교별		합계	
남학생	여학생	1학년	2학년	3학년	일반고	실업고		
1,356명	1,302명	857명	893명	908명	2,313명	345명	조사대상 학생수	2,658명
54.7점	56.7점	52.5점	56.2점	58.1점	57.4점	43.9점	평균	55.7점

자료원: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2004)

<표 2-2> 고등학생들의 경제의 이해도, 응용력 분포도

점수	19점이하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점이상
이해도	1.2%	6.4%	11.6%	15.5%	17.7%	21.6%	17.9%	8.1%
응용력	2.1%	9.9%	14.4%	18.7%	22.7%	9.3%	5.6%	4.6%

자료원: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2004)

조사에서 사용했던 문항들을 살펴보면 기초 경제 개념(희소성, 생산요소, 기회비용, 노동생산성, 화폐, 이자율, 교환) 14문항, 미시경제학 개념(경쟁, 수요와 공급, 소득, 공공재) 10문항, 거시경제학 개념(국민소득, 실업, 인플레이션, 통화·재정정책) 11문항, 국제경제학 개념(국제수지, 비교우위, 환율변동, 관세) 5문항 등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표 2-2>기초 경제 개념에 대한 이해력이 60.0점으로 가장 높았고, 국제경제학 관련 개념이 46.8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제 경제학 관련 개념은 다른 영역에 비해 점수의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국제경제학과 관련된 개념에 대한 이해력이 가장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제화 시대에 국제경제학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부족하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경제 이론에 대한 응용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즉, 인식수준별 이해 수준 비교에서 응용력은 52.2점을 기록해, 경제이론에 대한 이해력 60.2점이나 경제 지식 59.3점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그나마 고등학생들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학 지식이 실제 경제생활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데 큰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학교의 경제교육

현재의 우리 학교교육은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을 위해 필요한 단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데에 치중하고 있으며, 이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생활하고 적응하는데 필요한 생활의 지혜나 경제 원리를 가르치는 일은 너무도 소홀히 하고 있다³⁾.

그 결과 매년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는 60만 명의 고등학생들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경제관련 지식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 채, 생존경쟁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정글과 같은 경쟁사회 속으로 내던져지고 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학교와는 전혀 다른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또 일부는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신용불량 자라는 울가미를 받고 만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경제 정보나 경제 지식을 획득하는 주된 채널은 언론매체이다. 즉, 고등학생들이 경제 정보나 경제 지식을 TV·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해 얻는 경우가 47.0%로 조사되었고,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 얻는 경우가 23.5%로 나타나, 교과서나 참고서를 통해 얻기(응답자의 10.8%)보다는 주로 언론매체를 통해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 역시 학교 경제교육이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20대 가운데 36%는 학교에서 소비생활이나 금융 이용과 관련해서 전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

3) "학교교육자료"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http://www.kfta.or.kr>)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신용카드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 관리의 중요성 등에 대해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본 비율이 응답자의 11%에 그치고 있어, 20대 대부분이 특별한 사전 지식 없이 신용카드 사용에 노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2절. 경제 환경변화와 경제교육의 필요성

1. 경제교육의 필요성

이 시점에서 청소년의 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고찰이기도 하며, 도리어 의식적 혁명과 계몽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경제교육에 대한 역할과 청소년에 대한 교육의식에 강조되어야 할 점을 되짚어 보기로 한다. 경제적 사고방식(economic way of thinking)은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을 말한다. 경제적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습득한 학생들이나 어른들은 일상생활에서 놀라운 능력을 지니게 된다. 경제학을 이해하게 되면 사람들은 소비자로서 또는 생산자로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더구나, 국제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재의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경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삶을 성공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글로벌 경제체제 속에서 도태되지 않는 시민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최소한 자기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 세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력만이라도 지닐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 지식이나 경제 이해력은 개인의 관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필수적이다. 한 국가의 안전과 건강은 풍부한 경제 지식을 지니고 있는 국민들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이나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된 것 모두 그들의 경제 시스템이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 시스템보다 너무도 한참 뒤떨어져 있어, 도저

히 경쟁 상대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우리의 경제 시스템이 비교적 높은 생산성을 지니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발췌한 뉴스를 읽어보면, 경제 교육은 올바른 사회상 정립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연합뉴스의 기사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중·고등학생 10명 중 4명은 자본주의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빈부격차'를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청소년 경제교육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중·고생의 41.0%는 자본주의를 연상할 때 빈부격차를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는 중·고생 144명과 중·고 교사 220명을 대상으로 e-메일 설문을 통해 이뤄졌다. 또 중·고생들은 자본주의에서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으로 경쟁(24.3%), 효율성(10.4%), 부정부패(7.6%), 풍부한 기회(7.3%), 착취(0.7%) 등을 꼽았다. 중·고 교사들은 같은 질문에 경쟁(34.1%)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빈부격차(25.5%), 물질적 풍요(17.7%), 효율성(13.6%), 풍부한 기회(7.3%), 착취(0.5%) 등을 연상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기업의 중요한 역할'을 묻는 질문에서는 학생들의 25.7%가 '경제적 부의 창출'이라고 답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회공헌활동(18.8%), 좋은 상품의 생산(18.8%), 고용창출(16.7%), 정직한 납세(9.7%), 수출증대(5.6%) 등의 순이었으며, 교사들은 비슷한 순서로 대답했으나 경제적 부의 창출(50.9%)이라는 대답이 학생들보다 2배가량 많았고 고용창출(21.8%)이라는 답변도 학생들보다 훨씬 많아 기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소비자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는 학생들의 63.9%가 상품소비를 꼽아 가장 많았고 기업 감시(12.5%), 세금 납부(11.8%), 노동력 제공(6.9%) 등이라고 답했으며, 교사들은 이에 대해 76.4%가 상품소비라고 답했고 다음으로 노동력 제공, 기업 감시 및 세금납부가 각각 3.6%로 나타났다. 경제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경로는 중·고생의 경우 신문·방송이 40.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과서(31.9%), 웹사이트(11.8%), 가족(11.1%), 학습보조교재(3.5%), 클럽활동·동호회(1.4%) 등이었다. 그러나

중·고 교사들은 효과적인 경제지식 습득경로로 경제교육 프로그램 참가(29.5%), 교과서(25.0%), 신문·방송(21.8%), 학습보조교재(6.8%), 가족(5.9%), 클럽활동·동호회(5.5%), 웹사이트(4.5%) 등이라고 응답했다. 연구소는 학생들의 경제교육을 내실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사들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양질의 교육 자료를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⁴⁾」

이처럼 경제교육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개념은 갈수록 긍정적인 사회생활을 위한 필수 요인이 되고 있다. 사회 시스템에 대한 개념이 비현실적이거나 부정확하다면, 이에 기초한 의사결정들은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경제교육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열쇠 가운데 하나이다.

2. 경제 환경 변화와 필수로서의 경제교육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는 수십 년 전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고도화되어 있으며,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갈수록 심화될 것이다. 한 세대 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지금의 청소년들은 우리 때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신용카드를 접하고 사용하기 시작한다. 시장에는 세계 각국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물건들이 홍수를 이루며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경제 환경 변화는 의사결정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어려워졌으며, 의사결정자의 책임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 변화는 경제교육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우리들이 경제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공고한 지식으로 중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경제교육이 소홀히 취급되어 왔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결과를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는 중이다. 물론 사람들이 신용불량자가 되고 무분별한 소비를 하는 것

4) 연합뉴스. 중·고생 자본주의 인식 2005년 1월 16일

이 전적으로 경제 지식의 부족 또는 부실한 경제교육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미국 중앙은행 총재인 Greenspan(2001, 2003)의 말대로, 사람들이 적절한 금융 지식이나 경제 원리를 습득한다면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예방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되며, 경제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자신 앞에 전개되어 있는 확대된 기회들과 새로운 도전들을 유연하고 최대한으로 활용할 줄 알게 된다. 따라서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경제교육이 제기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⁵⁾. 운이 좋아 경제학이나 경제 지식을 배울 수 있게 된 사람들은 사회에서 기대하는 능력을 지니고 만족스럽고 풍요롭고 생산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 비해, 운이 없어 경제학이나 경제 지식을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며, 낙오자로 전락할 위험에 직면한다. 이는 매우 불행한 일이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이의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충분한 경제 이해능력을 지닐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권리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교육자로서 우리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우리들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경제적인 의사결정으로 가득 차있는 삶을 올바르게 영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육은 어린이들이 노동자로서, 소비자로서, 시민으로서 살아가면서 개인적·집단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본 원리를 제대로 훈련시키지 못하고 있다. 항상 그렇듯이, 경제교육을 강화함에 있어서도 가장 커다란 적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잠재해있다. 내부 장애요인 가운데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다. 경제교육을 수행해야 할 교사가 충분한 경제 지식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첫 번째 걸림돌이다. 이로 인해 교사들은 경제를 교육과정의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시키기를 주저하며, 막상 가르치려는 의욕이 있다고 해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르치지 못한다.

경제교육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내부의 적은 가르칠 시간이 부족하다는 고정 관념이다. 그러나 말하기와 읽기처럼 또는 더하거나 빼기처럼 경제를

5) Greenspan(2001, 2003)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삶의 필수적인 내용이라는 것에 동의한다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⁶⁾

3. 교육의 시기

오래 전에는 어린이들에게 경제 개념이나 경제 원리를 가르치는 것은 무리이며, 그럴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보편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모든 연령의 어린이들이 경제학을 배울 수 있고, 연령과 학습 능력에 구애받지 않고 경제교육이 가능하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Kourilsky(1987)는 이와 관련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을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⁷⁾

1. 모든 학년의(유치원생 포함) 어린이들은, 적절한 전략과 교재가 구비된다면, 경제학을 배울 수 있다.
2. 어린이들의 학업 능력 수준은 다양하지만, 모두 경제 개념을 배울 능력을 지니고 있다.
3. 어린이들은 다양한 수준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지니고 있지만, 모두 경제 개념을 배울 능력을 지니고 있다.
4. 어린이들은 다양한 교수 방법을 통해 경제 개념을 배울 수 있다.

6) Haskell and Jenkins(2002)는 시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해법으로 문해능력과 경제 이해능력을 통합해서 교육시키는 방법을 제시한다. 읽기나 쓰기 기능을 별개로 가르치기보다는 내용학 분야의 과목과 문해능력 기능을 통합하여 가르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육적 효과도 더 높으며, 궁극적으로 교수 및 학습 과정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용'으로서의 경제학과 '과정'으로서의 문해 능력을 통합함으로써, 예를 들어 경제 관련 내용을 읽고 쓰면서 학생들은 문해 능력을 습득할 뿐 아니라 경제 지식도 축적하게 된다. 한편, Day, et al.(1997)은 동화를 이용해 경제교육을 할 수 있는 자료 및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들은 동화 속에 숨어있는 경제 개념을 습득함으로써, 학생들은 경제가 매우 실용적이며 세상의 재미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동화를 이용한 경제교육 방법이 동기부여에도 효과적이고, 매우 유용한 간학문적 접근법이라고 주장한다.

7) 각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존 연구들의 목록은 그녀의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 연구 가운데 특히 Kourilsky(1977)의 연구는 유치원생들도 경제적인 의사결정 방법과 경제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수행할 때에는 어린이들이 발달 단계에 따라 (경제)개념을 습득하며, 또 자신들이 습득한 (경제) 개념을 활용할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많은 연구들이 발달 단계에 따른 개념 학습을 보고하고 있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어린이들은 이미 유치원 때부터 기본 경제 개념들을 체계적으로 통합할 수 있으며, 이 학습 과정은 고등학교 때까지 지속된다. 그리고 학교에서 습득한 지식은 성인 시절의 경제 지식 축적의 주춧돌이 된다.⁸⁾

Jahoda(1979)는 6~7세 정도의 어린이들도 사람들이 노동을 공급해 돈을 번다는 것, 즉 임금 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 그는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학교나 집에서 배운 것을 단순히 반복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에 대한 이해를 “구성(construct)”하려고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Schug도 역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발달 단계에 따라 어린이들의 반응이 구분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나이가 적은 어린이들은 자신들에게 더 친숙하거나 더 구체적인 개념을 배우기 시작하며,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 넓은 주변의 개념이나 추상적인 개념을 배우기 시작한다. 이는 다른 모든 분야의 교육과 마찬가지로 경제교육 역시 각 발달단계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어린이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 처음에는 구체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해 점차 추상적인 것으로 이행해 가면서 경제 개념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초기 발달 단계에 있는 어린이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 개념들만 소개하고 철저하게 그 배경만 제시할 뿐, 너무 많은 것을 가르치려 해서는 안되며, 너무 조급하게 어린이들을 몰아세우는 일도 피해야 한다. 유치원이든 초등학교이든 어린이들에게 경제교육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시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하나의 바람직한 혁명이 될 것이다. 현대 경제의 복잡성과 범위를 고려할 때, 경제교육은 중·고등학교나 대학교까지 미룰 수 없는, 그리고 미루어서도 안 되는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가운

8) Strauss(1952), Jahoda(1979), Berti, et al.(1982), Schug(1991)

데 하나이다. 경제학은 흔히 매우 어렵게 느껴진다. 이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 만약 모든 내용의 수학교육이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보자. 이 경우 수학 이해능력(math literacy)은 ‘극히 어려운’ 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또는 ‘끔찍한’ 것으로 묘사될 것이다. 수학 학습은 전 교육과정을 거쳐 발달 단계별로 이루어지지만, 경제 학습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다⁹⁾. 끝으로 경제교육에 대한 뉴스 하나를 살펴보고자 한다.

『"단순히 경제지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사고방식을 키워야 합니다." 김중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경제교육은 기회비용이나 한계비용 등 건전한 경제상식을 갖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전체 고등학생 가운데 단지 25%만 경제과목을 선택하고 나머지 학생은 대학입학을 위해 비교적 쉬운 과목을 선택한다"며 "이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경제마인드를 갖추도록 하거나 시장경제를 안정시키는 데에도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은 신용카드를 단순히 현금을 대체하는 편리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면서 카드에는 상호 '신뢰'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 그래서 신용불량자가 자연히 늘어났으며 이 같은 신뢰가 한 번 깨지면 영원히 돌이키기 힘든 게 현실이다. 그는 이에 따라 정부 학계 언론계 등 범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¹⁰⁾』

4. 청소년 경제교육의 견해

학생들에게 어떤 경제 개념이나 경제 원리를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학자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강조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전문가들이 머리를 모아 통일된 경제교육 기준안을 마련하고, 각급 학교와 교사들에게 채택할 것을 권장하

9) Soper and Walstad, 1991

10) 2005년 1월 21일자 매일경제신문 "청소년 때부터 경제원리 익혀야"

거나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는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나 경제교육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경제교육 학습 기준안이 아직 존재하지 않아, 교사들이 경제교육을 실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가지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경제교육에서도 가장 앞서가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참고하여, 어린이들이 배워야 할 경제 개념과 금융 개념을 간단히 정리해보기로 한다.

유치원생으로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생들에게 경제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해서 모든 학생들에게 모든 경제 원리를 다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래서도 안 된다.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 적합한 경제 개념과 원리를 단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교과서와 학습 지침을 참고하여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 배워야 할 기본적인 경제 개념 가운데서 유치원생들도 습득해야 하는 기본 경제 개념으로는 최소한 희소성, 선택, 재화와 서비스를 들 수 있다.¹¹⁾ 희소성(scarcity)은 우리가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모두 가질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자 경제학의 존재 이유이다. 희소성으로 인해 우리는 재산의 다소를 불문하고 여러 가지 경제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한정된 생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합리적인 선택(choice)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¹²⁾

이처럼 사람들은 여러 가지 기회 가운데 한 가지만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때에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이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다. 기회비용의 개념은 “공짜점심은 없다(There i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는 말로 잘 표현되는데, 기회비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모든 경제적 사고의 바탕이 된다. 이러한 기초 경제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유치원생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경제교육 내용으로는 원하는 것(wants), 원하는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 돈(화폐), 가격,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하

11) 구정화 (1994). 사회과 개념학습의 연구 동향 및 함의. 한국사회과교육학회.

12) 이승진·류미현·정승은(1998), “청소년 소비자의 소비자능력이 과소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는 방법, 용돈 관리 능력 및 책임감, 직업윤리 등을 들 수 있다.

제3절. 청소년 경제교육의 현황

1. 초등학교 경제교육 내용

학교에서는 먼저 4학년에서 고장과 지역사회의 생활에서 볼 수 있는 물자 유통을 통해, ‘경제생활이란 상호 의존적 교환 과정’(일반화)이라는 일반화된 원리를 귀납적으로 이해토록 한다. 그리고 가게 생활을 소재로 하여 희소성과 선택, 소비와 저축 등의 기본 경제 활동을 자연스럽게 가르친다. 그리고 <표 2-3> 참조 5학년에서 기업과 산업 및 대외 경쟁력에 대한 사실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입문토록 한다. 1997년의 경제위기도 소재로 활용한 점이 특이한 사항이다. 이러한 학교 경제 학습을 한 뒤, 학생은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기본 경제를 이해하고, 국가 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초보적인 인식을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경제적 개념이나 원리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할 것이다.

<표 2-3> 초등학교 경제교육 관련 내용 요소

내용 학년	주요 개념
3학년	○ 고장의 모습과 생활 - 고장 사람들의 삶 : 자원, 직업 ○ 고장 생활의 중심지 - 시장과 물자 이동 : 시장, 상품
4학년	○ 지역사회 · 지역의 자원과 생산 : 생산 활동, 수출, 공공 서비스 · 물자 유통과 상호의존 : 산업, 교환, 유통, 화폐, 전문화, 상호의존, 가격 형성 ○ 가정 살림 - 가정의 살림살이 : 희소성, 가격, 소득, 소비, 저축, 용돈쓰기
5학년	○ 세계속의 우리경제 ·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 기업, 재화, 용역, 산업분류, 기술개발, IMF 자금지원
6학년	○ 함께 살아가는 세계 - 우리와 관계 깊은 나라 : 무역

2. 중학교 경제교육 내용

<표 2-4>에서 참조하여 본다면 중학교는 2학년 세계사 영역에서 근대 자본주의 성립과 전개 과정을 대공황까지 학습한 뒤, 3학년에 미시 경제를 체계적으로 탐구하게 된다. 중 3과 고 1을 국민공통의 연계 과정으로 보아서 미시 편은 중 3에 거시 편은 고 1에 배분시켰다. 지금까지 경제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온 과다한 내용을 축소하고, 학습 수준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대량의 단편적 지식을 무의미하게 학습하는 대신 중요 내용을 심도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중학교 3학년의 주요 내용은 ‘민주시민의 경제적 역할과 시장 경제 이해’로 설정하였다. 시장 경제 체제에서 소비자, 근로자, 기업가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합리적 선택을 연습토록 하는 것이 중 3의 목표이다. 합리적 선택의 중요성이나 뜻을 추상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 개념과 기회비용과 비용 - 편익 분석을 활용하여 가상의 선택을 직접 해 보도록 하는 이 과정은 이론 학습과는 다른 것이다. 이러한 과정의 목적은 바로 경제적 사고력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표 2-4> 중학교 경제교육 관련 내용

내용 학년	주요 개념
중1	없 음
중2	○ 서양 근대 사회(세계사) - 근대 사회 발전 : 산업혁명, 자본주의 ○ 현대 세계의 전개(세계사) - 세계 대전 : 독점 자본주의, 대공황
중3	○ 민주시민과 경제생활 · 경제문제 해결 : 희소성, 기회비용, 비용 - 편익, 합리적 선택, 경제적 의사결정 · 경제체제 : 자유시장경제(연원, 장점), 미래 경제 · 민주시민의 경제적 구실 : 소비자, 근로자, 기업가, 납세자, 정책 결정자, 과소비 ○ 시장경제의 이해 · 시장경제 특성 : 시장경제 원칙(헌법적 근거), 시장경제의 문제점 · 가격의 결정과 변동 : 가격기구, 수요공급 법칙, 가격의 기능 · 시장경제의 발전 과제 : 경쟁, 공익

3. 고등학교 경제교육 내용

생활경제에서 다루는 것은 주로 1학년에서 이수하는 교양 선택군은 평가를 하지 않는 과목이다. ‘생활경제’는 저축·투자자, 소비자, 생산자, 직업인 등 미래 경제주체로서 경제적 역할 수행을 합리적이고 책임 있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목이다. 그 내용도 경제학의 이론 체계화를 지양하고, 학습자가 현재 또는 미래에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중에 실제 만나게 될 경제 상황을 중심으로 구성토록 하였다. 그러므로 교과서 내용과 다르게 지도해도 된다. 시사 경제 상황을 수업에 도입하여 실생활에 쓸 수 있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과정 취지에 맞다.

<표 2-5> 고등학교 생활경제의 내용

영 역	주요 개념
일상 생활과 경제	- 경제 생활의 기본원리 : 경제주체와 객체, 경제적 사고 - 경제 생활과 경제 문제 : 기본 경제문제, 기회비용, 경제체제 - 경제 생활의 미래 설계 : 합리적 선택, 경제적 의사결정, 경제윤리
경제 정보의 활용	- 미래의 생활 환경과 정보 : 정보사회 - 경제적 의사 결정과 정보 활용 : 정보의 종류와 표현 방식 - 경제 정보의 선택과 활용 : 정보 수집, 정보 평가
가계와 소비 생활	- 가계와 경제 생활 : 합리적 소비, 소비의 기능(절약의 역설) - 가계 계획과 저축 : 소득, 신용(신용카드), 생활설계 - 물가와 경제 생활 : 물가와 화폐가치, 물가지수, 물가변동 -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 : 소비자 문제, 소비자 주권, 소비자 책임, 소비자보호
합리적인 투자와 자산 관리	- 투자과 투기 : 주식, 저축과 투자 - 금융 및 실물 자산의 관리 : 저축, 자산, 신탁, 주식, 부동산 투자 - 거래와 계약 : 매매계약, 전자상거래, 주택임대차보호법 - 미래 사회에 유용한 자산 : 미래의 자산관리
고용과 직업 생활	- 일과 직업의 세계 : 직업의 의미, 직업선택, 진로 계획 - 미래 사회의 유망 직업 : 신생 직업, 청소년의 희망 직업, 고용구조 - 노동 시장과 직업 선택 : 노동의 수요와 공급, 임금, 직업 의식 - 취업 정보의 수집과 직업 설계 : 고용보험, 구직, 취직, 사원 채용 - 직장과 노사 관계 : 직업인의 권리와 의무, 노사관계, 신노사 문화
국제화와 경제 생활	- 국제화와 시장 : 글로벌 경제, 시장개방 - 조세와 국민 생활 : 조세 분류, 조세의 기능, 세금 구제 - 환경과경제: 환경문제, 친환경적 생활, 환경효율성(eco-efficiency)

제 3 장. 실태분석

제1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1. 초등학생의 경제생활 설문조사

조사일시: 2005년 3월

조사대상: 서울지역 11개 학교 어린이 1,12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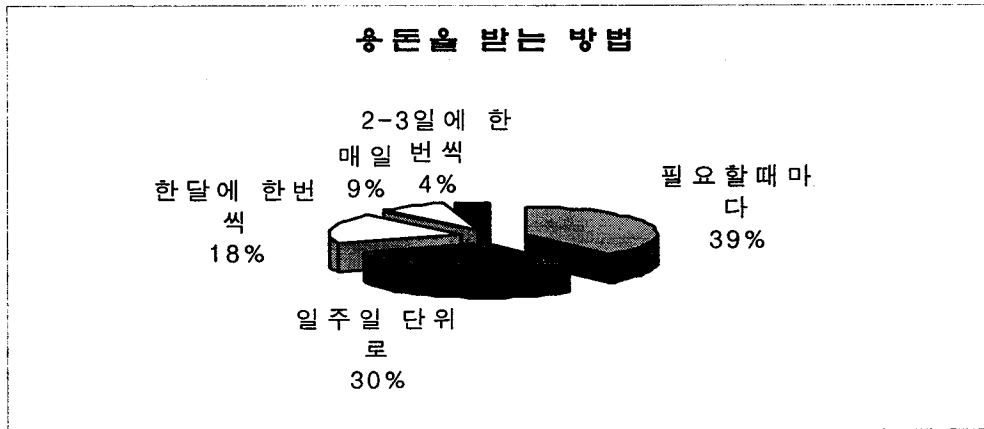
조사내용: 서울 어린이 용돈금액, 용돈관리 등, 경제생활 설문

조사학교: 신기, 덕의, 오류, 미성, 은정, 온수, 수암, 용동, 신방학, 고산, 장충

조사자: 조영관(LG카드, 어린이 동아일보 썬아경제동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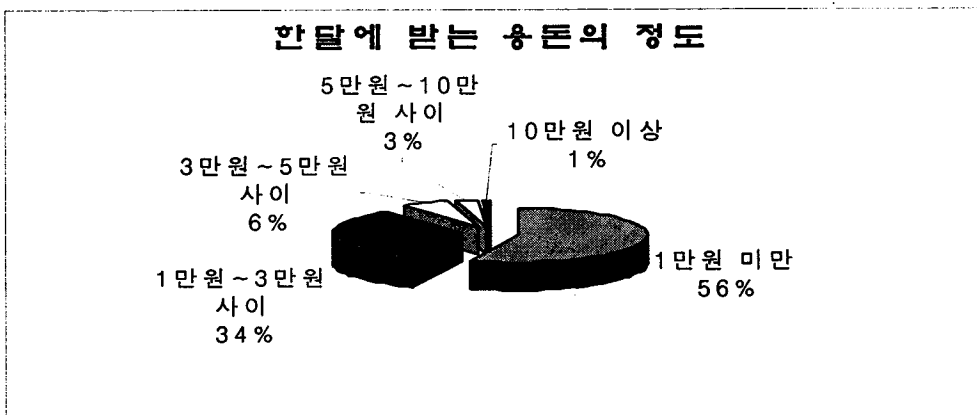
초등학생들은 용돈을 현재 어떻게 받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 [그림 3-1]에 39%가 필요할 때마다 받고 있으며, 일주일 마다 받는 것이 30%, 한달에 한번이 18%로 나타났다. 용돈의 빈도수는 돈에 대한 씬씀이를 설명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용돈을 자주 받고 있다는 조사는 돈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생각이 매우 자유스럽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¹³⁾

13) 2005년 5월3일자 어린이 동아일보 '서울어린이 경제생활' 설문조사 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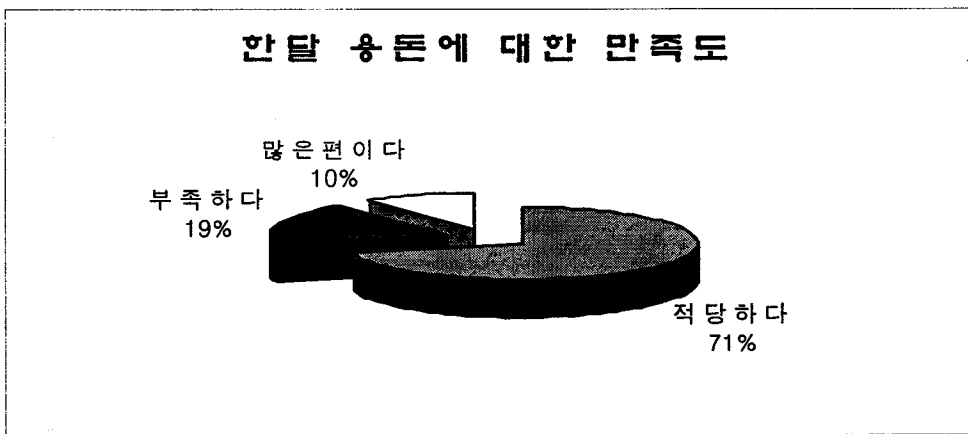
[그림 3-1] 용돈을 받는 방법

위의 설문은 용돈과 경제 이해에 대한 활용정도를 묻는 설문이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나 나타난 가정에서의 용돈지불은 특별한 방법이 없이 자신의 필요유무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경제적 금전관리가 전혀 배제 되어 있는 가정의 상황을 알 수가 있었다. 용돈의 관리와 저축에 대한 여부로 가정과 학교에서의 지원과 교육이 얼마나 조정되어야 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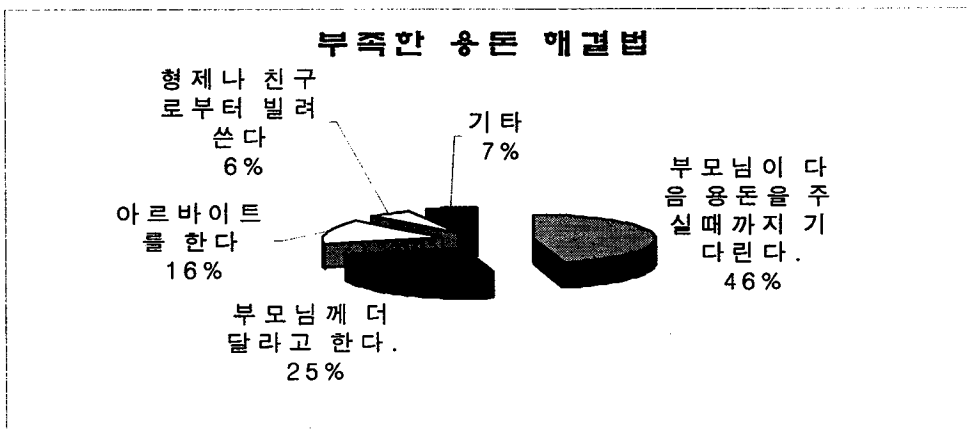


[그림 3-2] 용돈의 정도

[그림 3-2]에서는 한달에 한번씩 받는 용돈의 정도를 묻기 위한 물음이었다. 여기서 한달에 받게 되는 용돈의 규모는 1만원이 56%로 가장 높았고, 10만원 이상 받고 있는 학생들도 1%를 차지하고 있어 학생들이마다 다른 경제적 조건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한달 용돈의 만족도에 대한 [그림 3-3]을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한달 용돈에 거의 대부분이 적당하다고 생각했으나, 자신이 받고 있는 용돈의 부족을 호소하는 20%의 결과는 학생들의 씀씀이 규모가 일정하지 않으며, 반대로 용돈에 대한 만족도는 70%나 되어 매우 높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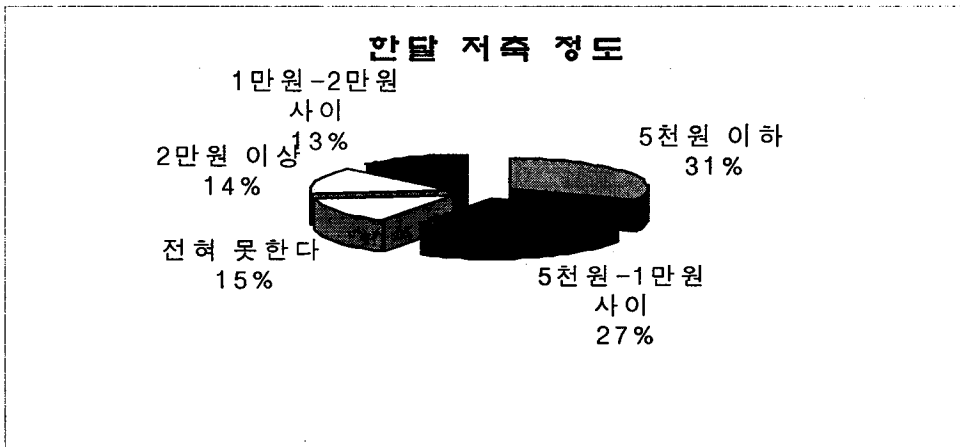


[그림 3-3] 용돈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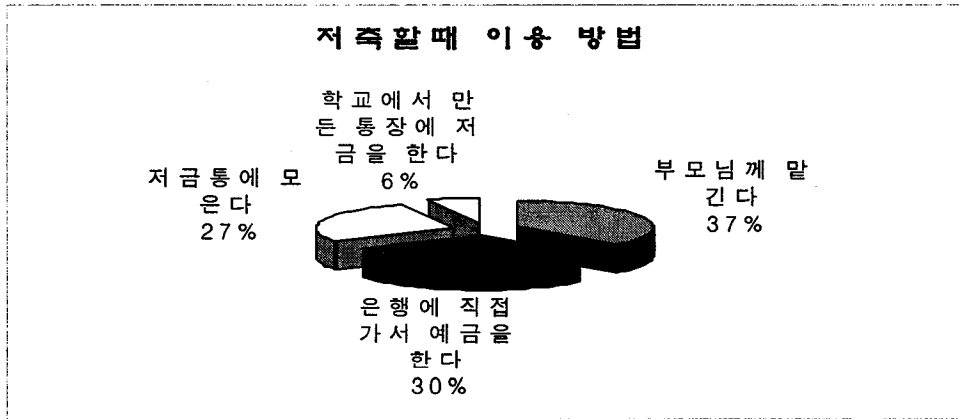
[그림 3-4] 부족한 용돈의 해결방법

[그림 3-4]에서는 학생들의 부족한 용돈에 대한 해결법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었다. 여기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용돈이 부족해졌을 때 아이들은 부모님이 용돈을 다시 주실 때까지 기다린다가 46%로 절반을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용돈을 달라고 부모님께 직접 말한다가 25%, 아르바이트와 친구·형에게 빌려 쓴다가 22%로 외부에서의 자금조달에 대한 어린이들만의 생각이 참신했다. 하지만, 여기 설문결과를 보듯이 자신의 힘으로 용돈을 벌려고 노력하려는 학생은 전체의 16%에 그쳐 아쉬웠으며, 이는 아이들의 돈에 대한 개념이 매우 정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3-5] 한달의 저축 정도

다음의 설문조사는 초등학생들의 돈에 대한 저축과 의식을 묻는 질문이었다. 여기서 학생들은 85% 이상이 저축을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 즉, 학생들은 한달에 조금씩이라도 돈을 모으는 습관을 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림 3-5]에서 보듯이 전혀 저축을 못하는 아이들도 15%나 되고 있어, 생활형편과 개인의 습관이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의식적으로 계도(啓導)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6] 저축할 때 이용 방법

저축을 하는 학생들에게 저축을 할 때 어떤 방법을 이용하는지에 대해 물어 본 [그림 3-6]의 결과로는 자기 자신이 직접저축을 하는 경우가 36%로 나타났다. 다른 방법으로 저축을 하는 어린이들은 부모님을 이용하는 방안을 사용하며, 본인이 직접 은행에 가는 일을 아이들이 많이 꺼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어린이들의 행동들 속에서 초등학생들의 저축과 돈에 대한 개념들에 대해서 우리교육은 매우 가볍게 다루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다. 또한, 학교에서의 저축과 돈에 대한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가정에서도 이러한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는데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하지만, 학생들 대부분이 자신의 용돈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 돈에 대한 환경과 의식이 아직은 형성되어 있지 않은 희망적인 상황도 추론할 수가 있었다고 본다.

2. 초등학생 경제활동에 대한 연구의 시사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초등학생들의 대부분이 경제와 관련된 이해지식은 용돈과 결부하여 용돈의 적고 많음에 대해서 만족도는 매우 높은 수준에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하지만, 학생들은 또한 용돈을 저축함에 있어서도 부모의 영향에 많이 좌우되고 있음 또한

알 수가 있었다. 학생들은 대부분이 부모에게서 용돈을 받고 있고 자기 스스로가 용돈을 벌어서 저축을 하기 보다는 부모의 의지로 인하여 저축을 하고 있었다.

결국 초등학생들에게서는 외부의 교육적 영향이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으며, 학생들의 대부분이 1만원 미만을 받고서 저축을 전혀 못하거나 5,000원 미만으로 저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초등학생들의 경제에 대한 이해도는 매우 기초적인 정도로, 앞으로도 부모와 학교 그리고 학원에서의 교육적 훈련과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다.

제2절.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조사

1. 선행 연구조사의 대상

삼성 경제연구소에서 남녀 중고생 1,275명을 대상으로 직업관, 경제의식, 경제활동 등 “중고생 경제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연구하였다

2. 조사결과의 분석

1) 청소년들의 직업관조사

조사대상 중고생들의 장래 희망직업 1위는 전체 조사대상 학생 중 16.5%를 차지한 교사이며 <표 3-1>과 같다. 또한 다음으로 선호하는 직업으로는 의사(10.4%), 컴퓨터 분야의 직업(7.5%), 기업가(6.7%), 예술분야 아티스트(6.0%) 순으로 조사가 되었다. 성별로는 남녀 학생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남학생은 의사가 13%로 1위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컴퓨터 분야 직업 (11.3%) 기업가(10.6%), 교사(8.7%), 변호사·검사·판사(4.5%)의 순이었고, 여학생들의 1위는 교사(24.6%)가 2위인 예술분야 아티스트(9.8%)를 크게 앞섰으며, 다음으로 의사, 언론 및 방송인, 연예관련 엔터테이너

순으로 조사되었다. 계열별로는 인문계 고교생들이 교사를 1위로, 다음으로 기업가, 의사, 예술분야 아티스트 순으로 선호하고 있었고, 실업계 고교생의 경우에는 컴퓨터 분야 직업이 1위, 다음으로 기업가, 교사 순이었다.¹⁴⁾ 또한 조사 대상 중고생들은 미래에 직장을 선택을 할 때에 금전보다는 시간적 여유(59.1%)가 있는 직장을 더 선호한다고 응답을 하였으며, 이것은 성별, 학교 및 계열별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표3 -1>중고생의 장래 직업희망 순위

순위	전체	백분율	남학생	백분율	여학생	백분율
1	교사	16.5	의사	13	교사	24.6
2	의사	10.4	컴퓨터분야 직업	11.3	예술분야 아티스트	9.8
3	컴퓨터분야 직업	7.5	기업가	10.6	의사	7.6
4	기업가	6.7	교사	8.7	언론 및 방송인	6.5
5	예술분야 아티스트	6.0	변호사, 판사, 검사	4.5	엔터테이너	3.8
6	언론 및 방송인	4.3	운동선수	3.9	컴퓨터분야 직업	3.6
7	엔터테이너	3.5	과학자	3.7	미용사	3.3
8	변호사, 판사, 검사	3.5	공학자, 건축가. 공무원	3.4	간호사, 건축가	3
9	건축가	3.2				
10	요리사	2.7			기업가	2.9

2) 청소년들의 경제지식 습득 경로 조사

청소년들이 경제지식을 습득하는 경로로는 조사대상 중고생들의 1/3 이상(34.3%)이 방송(TV, 라디오)으로 부터라고 답했으며, 상세한 분포는 <표

14) 의사는 치과 의사, 한의사를 포함한 것이며, 엔터테이너는 연예관련 직종을 말한다.

3-2>와 같다. 이러한 설문은 본문에서 나올 디지털과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경제교육 부분에서 더 심도 있게 다루기로 하자. 여하튼, 다음으로 신문(19.7%), 학교(19.2%), 인터넷(18.4%), 가정(3.8%), 경제관련 서적(3.8%)순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경우는 방송 다음으로 신문과 인터넷, 학교, 경제관련 서적, 그리고 가정 순이었으며, 반면에 여학생의 경우는 방송, 학교, 인터넷, 신문, 가정, 경제관련 서적 순으로 조사되었다.

고등학생은 방송, 신문, 학교, 인터넷 순으로 경제지식을 습득한다고 응답한 반면에 중학생들은 방송, 학교, 인터넷, 신문 순으로 정했으며, 고교생 중 실업계 고등학생은 방송, 인터넷, 학교, 신문 순으로 조사정리 되었다.

<표3 -2> 경제관련 지식의 습득경로 (단위%)

내용 구분	전체	성 별		계열별		
		남	여	중학생	인문계고	실업계고
방송 (t.v,라디오)	34.4	31.5	37.2	34.6	31.9	42.0
신문	19.7	22.2	17.4	15.4	26.9	13.0
학교	19.2	16.6	21.9	20.2	19.3	14.5
인터넷	18.4	19.4	17.3	19.5	14.9	25.4
가정	3.8	4.3	3.3	4.6	3.2	2.9
경제관련 서적	3.8	4.7	2.9	4.7	3.2	1.4

한편, 학교에서 배운 경제지식과 현실생활과의 밀접도에 대해서 조사대상 중고생들의 50.1%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것은 <표3-3>와 같다. 그러나 남학생과 고등학생은 그렇다보다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인문계 고등학생들은 그렇지 않다. 실업계 학생들은 ‘그렇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절반을 넘겼다.

<표3 -3> 학교에서 경제지식과 현실생활과의 밀접도 (단위:%)

내용 구분	전체	성 별		계열별			
		남	여	중학생	고등학생	인문계고	실업계고
매우그렇다	6.7	7.6	5.9	8.7	4.8	4.4	6.5
대체로 그렇다.	43.4	41.3	45.5	48.3	38.4	36.9	44.2
별로 그렇지않다.	44.1	44.6	43.6	37.2	50.9	53.0	43.5
매우 그렇지 않다.	5.4	5.7	5.1	5.0	5.8	5.8	5.8

또한, 조사대상의 중고생의 1/3은 자신의 사업에 대한 구상을 하거나 구상사업 내용 관련 지식을 습득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중고생들의 32.1%가 향후 사업에 대하여 생각이나 사업내용 관련 지식을 습득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한 것은 <표3-4>와 같다. <표 3-5>에 관련 사업에 대한 생각을 하고 사업관련 지식습득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언론매체(매스 미디어)를 통한 습득비율이 3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인터넷(33.3%), 학교(15.4%), 학원 등 관련 교육기관(8.8%) 순으로 조사되었고, 남학생들은 언론매체(19.6%), 여학생들은 인터넷(38.1%)을 사업 관련 지식 습득 경로의 우선순위로 활용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학교별로는 중학생은 언론매체, 고등학생들은 인터넷을 통한 지식습득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3 -4>사업의 지식을 습득한 경험여부 (단위:%)

내용 구분	전체	성 별		계열별			
		남	여	중학생	고등학생	인문계고	실업계고
예	32.1	32.9	31.2	29.4	34.7	33.3	39.9
아니오	67.9	67.1	68.8	70.6	65.3	66.7	60.1

<표3 -5>남여 계열별 사업관련 지식습득 경로 (단위:%)

전체	성 별		계열별		
	남	여	중학생	인문계고	실업계고
언론매체	39.6	29.9	33.7	37.7	30.9
인터넷	28.8	38.1	38.7	40.1	34.5
학 교	13.2	17.8	8.6	5.4	18.2
교육기관	10.8	6.6	7.2	7.2	7.3
주위 사람	4.7	5.1	6.3	6.6	5.5
책	1.90	2.0	1.8	1.8	1.8

3) 중고생 경제활동에 대한 연구의 시사점

조사결과 중고생들이 장래에 희망하는 직업 1위로 교사라고 응답한 것은 직업 선택에 있어서 안정성과 시간적 여유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에 실업문제와 정리해

고 등으로 인한 고용의 불안정성이 커짐에 따라서 안정적인 직업에 대한 선호도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연구에서 보여주듯이 많은 부분에서 경제활동에 대한 관심과 그 관심을 활용하기에는 외부적인 환경과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못함도 연구결과를 통하여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다. 전체 학생들은 경제지식을 얻는데 학교의 수업을 통한 지식습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매체인 텔레비전과 인터넷을 이용한 지식습득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것에 대한 정보습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학교교육에서 경제교육이 많은 부분 뒤로 밀려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중고생은 경제적 자립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아르바이트를 원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아르바이트 영역이 3차 서비스산업으로 편중되고 있어, 중고생들이 경제적 의미로 외부활동을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장소가 아닌바 그저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의미의 경제적 활동으로 그치고 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중고생들이 느끼는 사회의 이러한 모습은 결과적으로 향후 10년~20년 뒤에 사회활동을 하게 될 아이들에게 잘못된 편견과 지식을 주입함으로써 사회적 문제인 이직현상 심화와 치증되는 직업관의 한계를 가지게 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사회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조절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이러한 사회활동에 준비단계에 있는 중고생들은 대부분 대기업에 대해서는 또한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의 우선적 과제로 기업본래의 목적인 이윤획득 보다는 장학재단이나 봉사활동 등을 통한 사회에 대한 기여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과 이러한 과정들이 기업의 이미지 재고로 인한 미래의 수익성 증가보다는 사회적 기여와 윤리경영 등으로 결정되고 사회적으로도 신뢰받는 기업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한편으로는 중고생에 대한 학교 및 가정에서의 경제교육의 여건 강화가 필요하며, 고등학생들의 절반 이상은 학교에서 배운 경제지식이 현실과 밀접하지 않다고 대다수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학교 교육의 빈자리를 느끼게 해주었다. 중고생들은 학교보다는 방송과 신문

등 언론매체등과 같은 매스 미디어를 선호하여 자신의 지식을 습득하고 있어 학교나 가정에서의 경제교육 환경의 미비가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다.

또한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중고생들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지식습득의 場(장)으로 학교 교육이 활용되지 못하고, 매스 미디어와 인터넷이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이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방학 중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중고생이 전체 학생의 1/3을 넘고 있으나, 원하는 아르바이트 장소는 일부의 서비스업종에 집중되어 있으며, 아르바이트를 직업에 대한 준비와 탐색의 기회라고 보는 특명이 매우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교육적 측면에서 학교의 교육에서 얻을 수 없는 지식습득을 위해 전문가를 투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지식습득의 장으로 매스미디어를 선호하고 있는 중고생들을 위하여 매스미디어를 통한 지식습득에 올바른 경제지식을 제공해줄 프로그램과 인프라 구축이 매우 절실하다는 점도 연구 조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입시위주의 교육 개선과 부당노동의 행위로 타격을 입을 중고생을 보호해줄 수 있는 관련법규와 제도 정비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3절. 교사 경제교육의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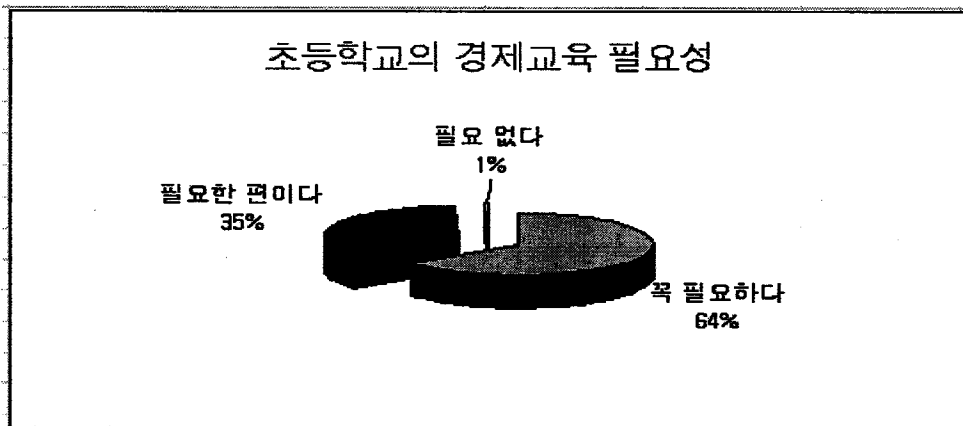
본 조사는 실질적인 교육을 맡고 있는 현장의 교사들을 통하여 현재 교사들의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과 문제점 그리고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소년의 교육에 대한 본질적인 방안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1. 교사 실태조사

조사일시: 2005년 1월11일
조사장소: 서울교육대학교
조사대상: 서울시 초등사회과 교육 연구회 회원
참여인원: 총350명 중 304명의 교사가 응답
조사자: 초등경제교육 연구소, LG카드 조영관

(1)초등학교의 경제교육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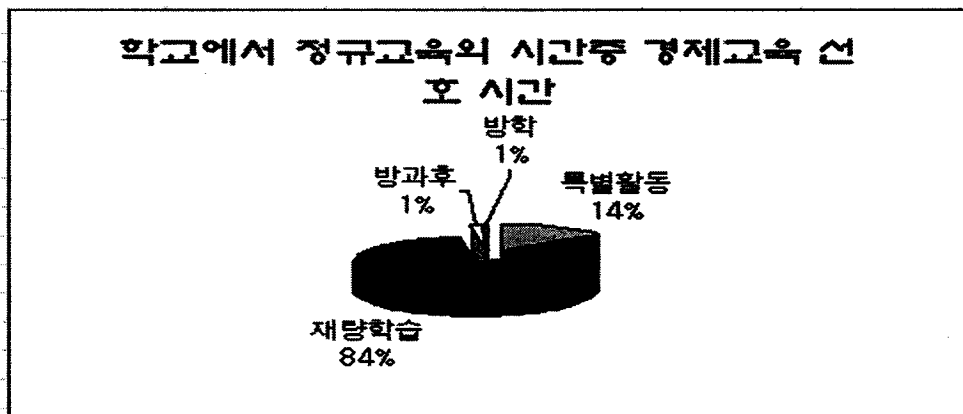
일선 교사들에게 초등학교의 경제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응답한 교사들은 꼭 필요하다(64%)로 가장 많은 응답비율을 보였으며, 필요한 편이다(35%)라고 답한 교사도 그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보여 경제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교육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필요 없다(1%)”에 비하여 월등히 높아 경제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을 갖는 교사들이 대다수로 볼 수 있다.



<그림 3-7> 교사들의 경제교육 요구

(2) 경제교육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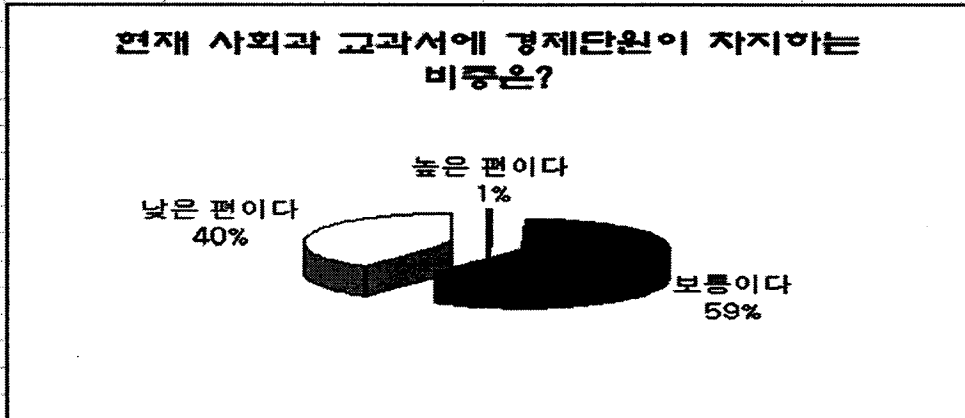
“학교 외 시간 중 경제교육을 할 시간은 언제인가?”라는 질문에는 대다수의 교사들이 “재량학습(84%)”을 원하고 있으며, 그 다음 의견으로는 “특별 활동(14%)”이라고 답하여 학교 내에서의 경제교육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8> 교육시간에 대한 설문

(3) 경제단원이 차지하는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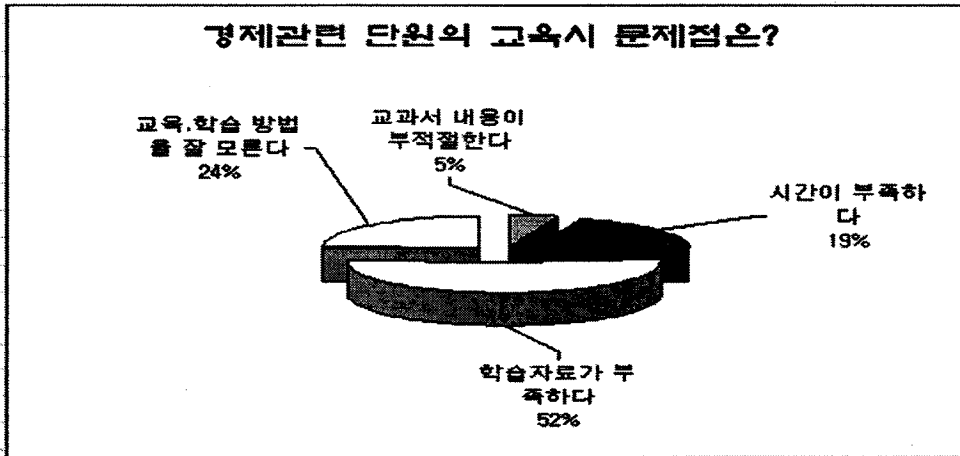
“사회과 교과서에서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보통이다(59%)”, “낮은 편이다(40%)”라고 답하여 전체적으로 경제교육의 비중이 부족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그림 3-9> 현행 교과서에서의 경제분야 비중

(4) 경제교육시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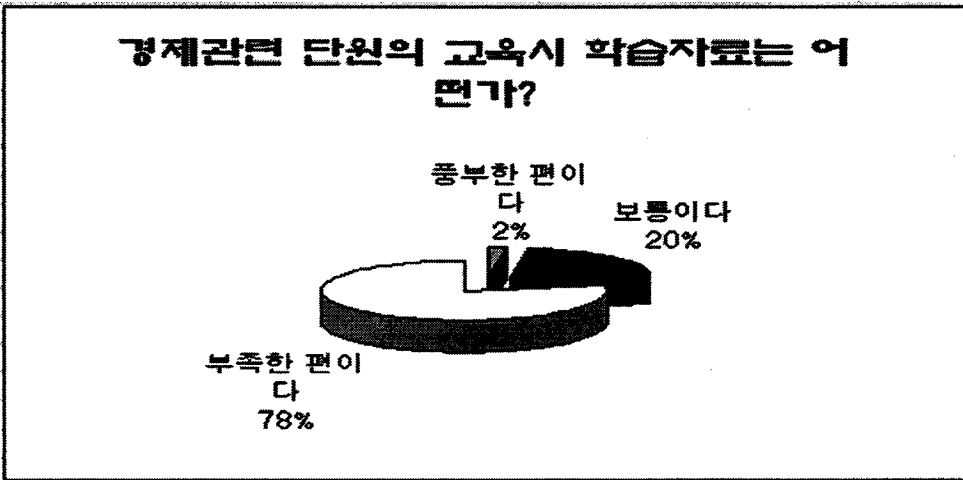
학교에서 교사들에게 있어 경제단원 교육을 하였을 때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교사들은 “학습 자료가 부족하다.(52%)” “교육, 학습 방법을 잘 모른다.(24%)” “시간이 부족하다.(19%)” “교과서 내용이 부적절 한다(5%).” 라고 대부분의 교사들이 학습에 대한 자료부족과 방법에 대하여 경제교육에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또한 경제교육에 할애할 수 있는 자체적인 시간의 부족을 호소하였고 국어와 영어, 수학에 편중되어 있는 현재의 교육제도의 문제점 또한 어려움으로 꼽았다.



<그림 3-10> 경제교육에 있어서 교사들의 애로사항

(5) 경제교육 학습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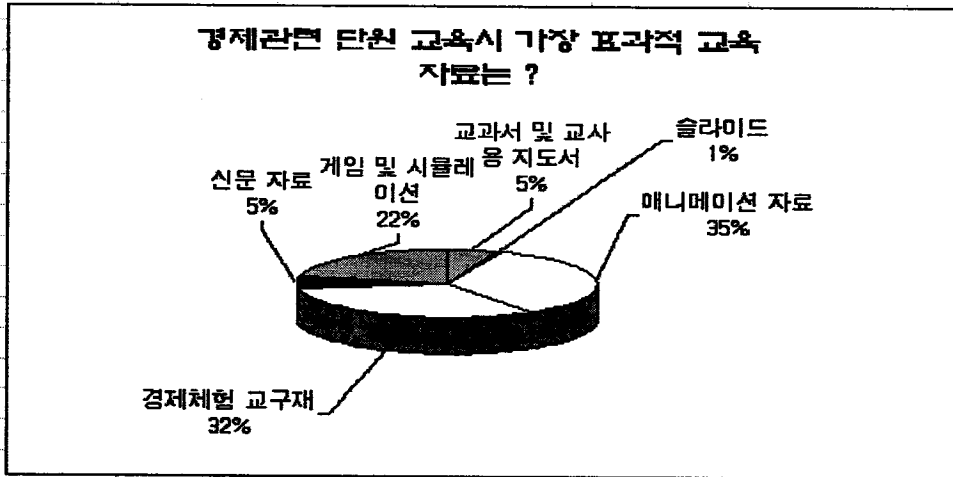
경제단원 교육 시 학습 자료의 양은 적절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다수의 교사들은 자료에 대한 불만족을 보였는데 “부족한 편이다.(78%)” “보통이다.(20%)”라고 대답하여 전체적으로 경제관련 교육을 시키는 데에 자료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풍부한 편이다.(2%)”라고 대답하여 상대적인 대조를 이루었다.



<그림 3-11> 교사들의 경제교육 관련된 자료보유 의견

(6) 경제교육시 효과적인 교육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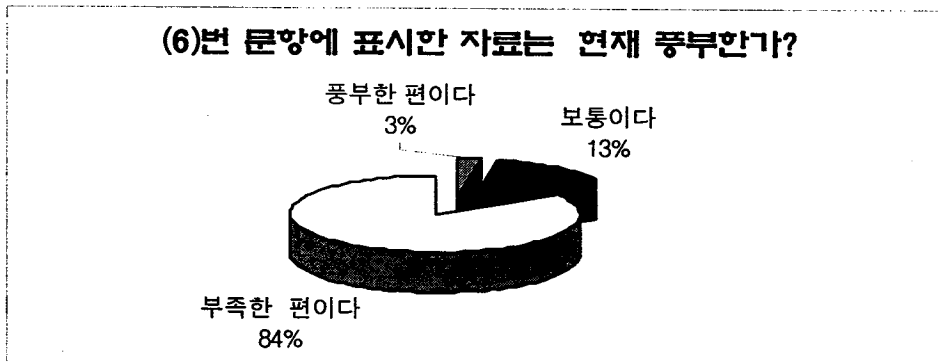
교사들에게 경제교육을 사용할 경우에 효과적 자료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애니메이션 자료(35%)”의 활용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답하여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일선교사들에게 만화영화가 어린이가 가장 빠른 교육적 효과를 가져온다고 믿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제체험 교구재(32%)”를 활용하자는 의견도 나왔는데, 이것은 현실에서 경제를 쉽게 접하고 아이들이 직접 이해하는 교육이 효과적이라고 답한 경우이다. 그 다음으로는 “게임 및 시뮬레이션(22%)”으로 답하여 “신문 자료(5%)”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5%)”등과 같이 아이들이 직접 호기심과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면서 쉽고 친숙하게 경제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림 3-12> 경제교육과 관련된 효과적인 자료

(7) 경제교육 풍부한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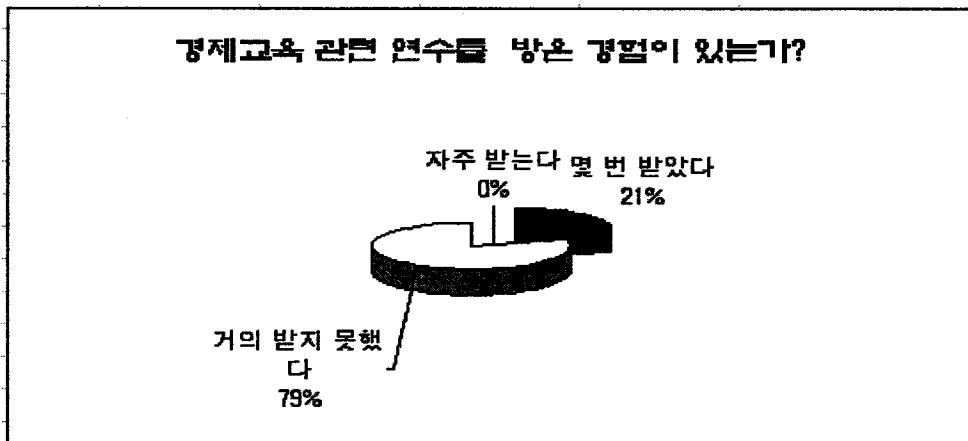
현재 교사들에게 경제단원의 효과적인 자료의 양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의 교사들은 “부족한 편이다.(84%)”이라고 대답하여 절반이상의 교사들이 현 교육에서의 경제학에 대한 충실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가 있었다.



<그림 3-13> 현재의 경제관련 교육 보유자료

(8) 경제교육 연수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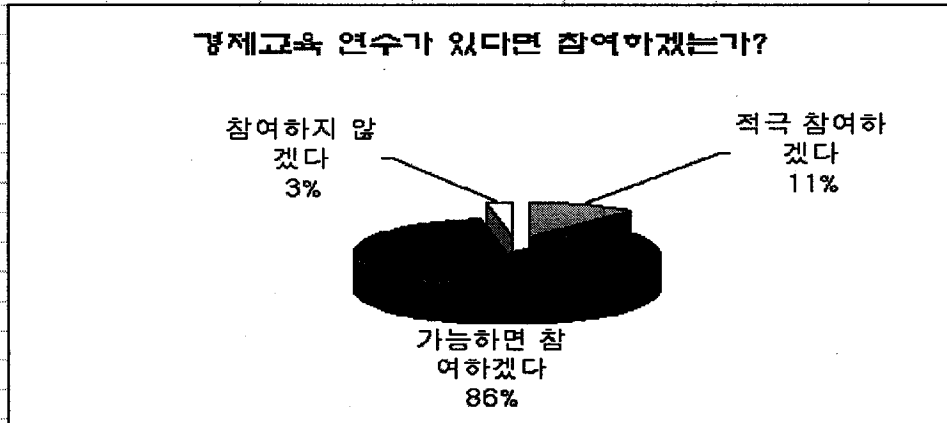
지금까지는 경제교육에 대한 외부적 조건을 살펴보았는데, 교사에 대한 경제에 대한 노력에 대한 질문을 “경제와 관련된 연수를 받았던 경험은 있었는가?”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교사들(79%)이 거의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답하여 교육의 선봉에 있는 교사들에 대한 경제교육의 부재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3-14> 교사들에 대한 경제교육 실태

(9) 경제교육 연수 참여의식

교사들은 “경제교육 연수가 있다면 참여”는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교사들이 경제교육에 연수에 대한 긍정적인 참여의사를 내보여 “가능하면 참여하겠다.(86%) 적극참여하겠다.(11%)”경제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의 의사를 보였다.



<그림 3-15> 경제교육 연수에 대한 교사의 참여의식

2. 교사 경제교육 실태조사의 시사점

교사들 대부분은 실태조사에서 경제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경제교육 환경이 매우 빈약하며, 열악하다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원인들은 학습 자료의 미비와 경제교육 연수를 받지 못한 것, 또한 교육시간의 부족함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에서 현재의 성적위주, 대학입학의 교육정책이 경제교육 수업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주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들 속에서 교사들은 경제교육 연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보여 경제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자리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또한 경제수업을 하는데 에 있어서 교사들은 “애니메이션 자료” “경제체험 교구재” “게임 및 시뮬레이션”의 방법이 학생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선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방법들은 지금 초등학생들이 가장 흥미를 가지고 있는 도구들을 활용한다면 더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을 보여 주었다.

결과적으로 교사들은 학습 자료의 확보와 학습내용의 방법과 시간, 교사의 경제교육 연수의 확보를 통한 원활한 경제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절. 실태분석들의 시사점

초등학생의 실태조사와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실태조사 그리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얻어지는 결과들은 공통적으로 현재의 경제교육에 대한 환경과 의식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먼저, 초등학생의 경우는 부모의 동의 혹은 외부의 환경에 의하여 경제교육에 대한 기초적인 습관과 의식이 정해지게 되며, 이것은 매우 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초등학생들은 모든 습관과 사물과 사회현상에 대한 의식을 부정적 긍정적인 방식의 기초적인 교육을 습득하게 되는데 이것에 따르는 경제교육이 매우 미흡하며, 부모와 학교의 영향력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는 현실임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로 삼성경제연구소의 중·고등학생들의 경제활동의 조사를 보면, 중·고등학생들 대부분이 자신들이 원하는 경제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경제와 관련된 창업 자료와 직업선택에 대한 자료를 학교가 아닌 외부기관인 인터넷, 텔레비전, 신문을 많이 이용하며, 학교교육에 있어서 경제교육이 매우 미흡하고 통합된 자료의 보유도 매우 미미한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세 번째로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애로점은 실질적인 경제교육 위주의 교육이 아닌 대학입학과 성적위주의 국어, 영어, 수학에 편중되어 있는 국영수의 비대화가 경제교육을 실시하게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수업을 시행하게 하는데 대부분의 교사가 경제교육 연수를 받지 못하였으며, 학습 자료와 방법의 부재는 경제수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게 하고 있었다. 하지만, 교사들 대부분이 경제교육 연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보여줌으로써 부적절하게 평가되어 왔던 현행교육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보여주었다.

제 4 장. 청소년 경제교육의 방향과 개선방안

제1절. 청소년 경제교육의 과제

1. 경제교육에 대한 문제제기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 경제학이 넘어오게 된 것은 직접적인 서양의 학문이 아닌 일본과 중국을 거쳐서 걸려진 학문으로 매우 보수적이며, 어렵고 난해한 학문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경제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되었고, 경제를 가르치는 일선 학교에서도 난해한 과목으로 학생이나 교사 모두 어렵고, 다루기 힘든 과목으로 치부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학교 경제교육은 입시 위주의 교육 시스템과 경제 이론 및 지식 전달 위주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현실경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 집행에 따른 사회적 갈등, 신용불량자 문제 등을 계기로 개인의 경제의식에 근거한 행위가 발생시키는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실감하게 되면서 경제교육에 대한 관심에 지대한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각 기관이 특화 가능한 부문에 역량을 집중시켜 전문성을 갖춘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외적 경제성장에 비하여 내적 경제의식이 성숙하는 것이 미흡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가 겪어 온 역사적 배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올바른 시장경제관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부족하게 되었다. 이러한 낙후된 경제의식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정책결정에 필요한 의사결정 비용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¹⁵⁾ 건전한 시장경제인 양성을 위한 경제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것은 현대의 신용불량자 문제를 계기로

15) 여주은(1994), 청소년소비자기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경제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과 기존 교육의 성과에 대한 반성이 고조되었다. 또한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온 청소년 경제교육에 대한 점검과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2.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경제교육 관심 저조

청소년 경제교육은 오늘날 입시위주의 교육현장에서 자리 잡을 틈이 없다는 점을 현장 교사들은 지적하고 있다. 입시중심의 청소년 교육도 영·수·국 중심으로 되어 있고 경제는 기타 과목의 하나로 되어 있는 정도로서 우선순위가 한참 뒤로 쳐져 있는 입장이다. 학생들의 경제과목에 대한 흥미 부족과 경제과목이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경제 선택을 기피할 뿐만 아니라 일부 학교에서는 경제를 선택하고서도 정치·사회문화 등 타교과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다고 한다.¹⁶⁾

또한 근년의 수능시험문제 중 경제문제는 통합출제를 지향함에 따라 경제학 교수들이나 고등학교 전문교사들도 정답을 맞힐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난해하여 학생들이 더더욱 경제과목을 기피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현장 교사들의 고백이었다. 따라서 사회과목 중에서 경제과목의 난이도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심지어 교사들은 1999학년도부터 대학 수능시험에서 경제가 선택과목으로 바뀌게 되면서부터 경제과목을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였다. 온 사회가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청소년 경제교육은 우선순위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3. 이론위주의 경제교육

일부 교육청이나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가모(아끼기, 가르기, 모으기)운동이나 아나바다(아껴쓰자, 나눠쓰자, 바꿔쓰자, 다시쓰자)운동, 용돈기입장, 1인 1통장 갖기 등은 대부분 소비절약 중심교육에 치우쳐 있

16) 손상희(1997), “소비사회와 청소년 소비문화”,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어 기업의 생산과 시장 활동, 국제무역의 새로운 변화, 부에 대한 개념, 기업이 정신, 정보화 등을 등한시하고 있어 무한 국경시대에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학교 때부터 게임이나 현장학습 등을 통하여 이에 대한 경제교육이 심도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우리 경제가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각 경제주체들의 경제행위는 시장경제에 반하는 경우가 많아 여러 분야에서 경제 질서 및 가치관의 왜곡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 원리에 대한 경제교육이 학교 때부터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¹⁷⁾

4. 경제 교육 전문가 및 시스템 부족

올바른 청소년 경제교육을 위한 전문가도 별로 없고 관련 교육 자료도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다. 청소년 경제교육을 학교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대부분은 경제학 전공자가 아니다. 지리과, 역사과 또는 법과 출신의 교사들이 경제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3분의 2 이상인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선생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경제 교육 자료도 부족해 담당교사들은 신문을 스크랩하여 임시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영어·수학·국어의 교육환경과는 달리 경제교육환경은 매우 신속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교육 자료도 그때그때 달라야 한다. 무역흑자 시대에 만들어진 교과서가 현장에서 사용될 때는 이미 무역은 적자로 돌아선 상태라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에 대하여 개방 압력을 가해 오는 이유는 한국의 대미 무역이 흑자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 교과서의 내용이었으나 학생들이 배울 때는 이미 한국의 대미무역은 엄청난 적자로 반전된 뒤였기 때문에 일선 교사들이 매우 당황했다는 것이 웃지 못 할 경제교육의 현실이다.

17) 손상희(1996), “남여 대학생들의 소비문화형태”, 대전대학교 학생생활연구

제2절. 주요국가의 청소년프로그램

1. 미국

미국의 경제교육은 다양한 경제교육 프로그램과 분야별로 특화하는데 중점을 주었다. 연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비영리 민간경제교육 기관의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 정부보다 시장과 자발적 조직에 대한 신뢰가 강한 문화를 형성하였던 것에 기초하여 창업교육, 마케팅 및 기업경영 수업 등 다양한 경제교육 분야를 운영하고, 경제과목이 사회교과에 부분적으로 포함되거나 선택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그러나, 초등학생 창업교육, 고교생 마케팅 수업 등 다양한 형태의 커리큘럼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없었던 부분을 다른 프로그램과 교육을 통하여 재교육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제교육제도이다.

1) 정부의 교육지원

미국 의회에서는 2002년 NCLB(No Child Left Behind Act)법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NCLB법은 청소년 경제교육을 비롯해 교육혁신이 필요한 분야에 3억 4천만 달러 가량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소년 경제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적인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조기금융교육법안은 5년간 청소년 경제교육에 5억 달러를 투자하고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미국 의회는 2001년 조기금융교육법안을 통과) 2002년 6월 청소년 경제교육을 전담하기 위한 재무부 경제교육실을 설치할 만큼 많은 정부지원과 법안을 제정하여 적극적인 청소년 경제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2) 민간교육기관의 현황

미국은 교육내용과 대상에 따라서 다양한 교육기관이 있으며 전국 규모의 경제교육기관도 40여개에 이른다. 이러한 활발한 자원봉사 시스템을 통하여 현업 종사자들의 생생한 체험이 학생들에게 전달 될 수 있도록 매뉴얼화를 통해 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경제교육조직(National Council on Education; NCEE)는 경제계와 교육계 지도자들의 협의체로 각 대학과 연계하여 매년 12만명의 교사에게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사들은 학교현상에서 다시 700만 명의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경제개념을 교육(46년간 600만 명 이상의 교사와 그들로부터 1억명 이상의 학생들이 경제교육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을 받고 있다. JA, DECA, NFTE 등은 기업들로부터 받은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경제교육단체로 시장경제, 기업가정신, 창업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하였다.¹⁸⁾

JA(Junior Achievement)는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 1919년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3천900만 명의 학생들을 교육해 왔다. (현재 세계 110여개 나라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지부가 있어 매우 활발하게 활동중이다) DECA는 1946년 창립된 이후 마케팅과 청소년 창업교육에 주력하였다. 전인 경제교육에 중점을 두는 JA와는 달리 올바른 직업선택을 유도하는 것이 교육의 주된 목적이다. 매년 전 세계에서 1백 만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창업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청소년 창업교육단체는 1987년 창립되었으며 미국의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실시하였다. 뉴욕의 할렘 흑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교육에서 출발하여 현재는 미국 전역의 학교 중퇴자나 소년원 출신 학생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

연방금융교육재단(National Endowment for Financial Education; NEFE)은 금융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बैं킹, 보험, 신용관리 등을 주로 교육하며, 청년파산, 신용불량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

18) Holbrook, M.B. & E.C. Hirschman(1982), "The Experiential Aspects of Consumption: Consumer Fantasies, Feelings and Fu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전한 경제활동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으로 갖기 있다.

2. 영국

창업과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정부를 지향한다. 부진한 창업과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다소 보수적인 국민성향으로 인하여 창업과 기업 활동이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활발하지 않은 편으로 나타나있으나, 영국 정부는 민간 활동으로 “Enterprise Insight”를 통한 기업가 정신 제고 캠페인을 전개하고 예산을 전액 지원하였다.

“Enterprise Insight”는 1999년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고 기업의 역할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인하여 추진되었다. 대기업들이 그 지역 연고의 중소기업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상호 이해를 높이는 기회로 삼았다. “IIP(Investors In Residence), Enterprise Week.”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기업가들이 학교를 방문하여 강연하거나 지역별 워크숍을 개최하여 활성화하는데 매우 적극적이었¹⁹⁾ “Science & Enterprise Center”를 운영하여 경영마인드를 가진 과학기술 인력양성에 주력하였고, 이에 20여개 대학에 개설된 2주간의 미니 MBA 교육 프로그램 이공계 학생의 경영마인드의 재고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되었다.

3. 스웨덴

정부와 기업의 실용주의적 경제교육 지원하고 있다. 스웨덴은 오랜 사회주의 전통에도 불국하고 실리를 우선시하는 실용주의적 사회 분위기가 이미 정착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다. 집권당인 사회민주당도 민간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경제 교육에 힘쓰고 있다

19) Belk, R.W.(1984), “Three Scales to Measure Constructs Related to Materialism: Reliability, Validity, and Relationships to Measures of Happines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는 것이 그 예이다.

실용주의적 가치관으로 인하여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심각하지는 않음 정부와 기업이 경제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나라이다. 스웨덴경제인연합회는 시장경제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Youth Communication”은 학생들에게 글로벌 경제와 노동시장을 비롯하여 시장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Theme Day”는 4만 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미래의 경력을 위한 조언 등을 제공하는 1일”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청소년기의 가치관형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스웨덴의 실용주의적인 경제교육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allenberg그룹 등의 기업들이 청소년 기업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년여 동안 기업의 전략과 사업계획 등을 직접 개발하고 작성하도록 하는 전국규모의 비즈니스 경연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여, 민간부분의 청소년 경제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을 잘 볼 수가 있다.

4. 일본

최근 경제교육을 강화하고자하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경제교육의 수준이 미국에 비하여 크게 뒤져 있으며, 우리나라와 상황이 비슷한 교육제도, 즉, 입시제도와 경제교육을 외면하고 고득점과목에 치중하는 풍토가 남아있는 나라인 일본도 이제 경제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 등 우리와 매우 유사한 교육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학계는 마르크스 경제학에 상당한 비중을 할애했기 때문에 현재 교사들의 상당수도 당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한다.

일본 교육계 전반에서 경제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재 개발과 교사 재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경제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가시화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금융교육을 학교 정규 교과과정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협의가 진행 중이며, 금융권은 금융교육 교재를 제작하여 각 급 학교에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교과서 개편 시 경제교육의 목표를 '저축'에서 '투자'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정해 놓았다. 학교 경제교육의 저축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건전한 소비와 금융 교육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2. 주요국가 경제교육 프로그램의 시사점

정부와 기업이 경제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각 국은 경제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들이 시장경제의 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건전한 기업관을 갖는 것이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었다. 정부와 기업이 경제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었다.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도 우호적인 기업 환경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경제 교육을 지원하고 있었다. 민관의 역할 분담을 통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민간 부문의 적극적 협조와 분업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였다. 경제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실질적인 지원으로 연결되었다. 정부는 재정 지원과 함께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경제교육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국민적 관심을 환기 시켰고, 민간 교육기관은 축적된 노하우와 인력을 활용하여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업은 경제적 지원을 병행하였다. 민관 협동을 통하여 교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학교교육이 가치는 한계를 극복하였다. 실용성을 강조한 내용과 다양한 형식의 교재를 통하여 교육효과를 증대하였다. 비즈니스 체험, 창업, 마케팅, 신용교육 등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의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시뮬레이션 게임, 멀티미디어 자료 등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는 교재들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경제교육이 가능하다.

제3절 청소년 경제교육전문 교사 양성

1. 초등학교에서의 경제 교육과 경제전문교사의 양성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청소년 경제교육의 문제점은 전문 교사의 부재에서 기인한 면이 많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대학을 졸업 후 교사로 임명된 관계로 초등학교 교사들의 경제학 지식은 전무(全無)하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제전문교사의 양성 및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초등학교 교육에서의 경제 시간 할애가 시급하다고 본다.

이는 현재에도 예체능계를 중심으로 미술·음악 등의 전문교사가 활동하고 있고 각급 학교 체육부를 야구·축구 등의 전문가가 책임지고 있는 것과 같으며, 초등학교에의 영어교육 도입과 발맞추어 native speaker 등을 활용한 영어전문교사의 투입과 맥(脈)을 같이 하는 것이다.

다만 현재의 초등학교 교육과정 상 경제과목이 사회과·실과·도덕과 등에 산재(散在)되어 있어 이를 하나의 독립된 시간으로 편성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점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교육학자와 경제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등의 관심과 결심이 필요하다.

그러나 앞에서도 살펴 본 바와 같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CA시간이나 교장재량학습시간 등을 이용하면 적어도 주 1회의 경제교육 시간은 할애가 가능할 것이며, 이는 현장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들도 상당히 원하고 있는 현실이다.(제3장 제3절 그림 3-7, 3-8)

따라서 사회와 학교가 필요로 하고 있는 초등학생에 대한 경제교육의 여론을 조성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전문적 경제교사를 양성하여 청소년 경제교육의 질을 높이고, 상경계열을 전공한 유휴인력을 경제전문교사로 양성하여 현장에 투입함으로써 이들의 취업을 통한 청년실업의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2. 청년실업자의 재교육을 통한 초등경제교육전문가 양성

여기서 청년실업자라 함은 4년제 대학에서 상경계열을 전공한 사람으로

상경제열에 진출할 의향은 있으나 구직난 등으로 인해 미취업 상태이거나 비전공 계열에 취업하여 직장인으로써의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들 중 초등경제교육전문가로의 진출 의향이 있는 사람을 모집하여 테스트를 거친 후 소정의 교육 및 심사를 거쳐 초등경제전문가로서의 자격을 주고, 이들이 각급 초등학교의 경제시간에 투입되어 강의하도록 함으로써 초등학교생들에게는 양질(良質)의 경제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에게는 보람찬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경제에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보고자 함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정부 및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초등경제교육 필요성에 대한 성숙된 마인드가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학(學)·관(官) 협력기구’의 설치 등이 필요할 것이다.

1) 청년실업자의 활용 방안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청년실업자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나와 있는 실정에서 청년실업자들의 활용은 적극적인 도움과 실현이 절실한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청년실업자를 활용하는 방안에는 제도적 방안과 실무인재 양성과 같이 2가지로 나눌 수가 있게 된다. 첫째 제도적 방안으로는 청년실업자들에 대한 재교육 실시 등의 정책적 지원을 통한 일자리 제공 <표 4-1>에 있다. 이러한 일자리 제공은 경제교육에 대한 전문인 양성의 일환으로 시도하는 것이며, 이는 정부에게 청년실업 해소 달성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둘째 초등학교 교육에서 경제교육의 부재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여러 가지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학교교육에서의 경제교육을 활성화 시키며, 전문 경제교육 담당자가 선정됨으로써 일선 교사들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는 전문적인 현실 경제를 도입하여 보다 개선된 정보를 줄 수가 있다는 이점이 있다.

<표 4-1> 일자리 변동성 (단위: %)

일자리 창출률	일자리 소멸률	순일자리 증가율
14.16	13.03	1.13
10.35	10.71	-0.36
9.63	10.67	-1.03
8.95	9.98	-1.03
6.58	8.47	-1.89

자료원: 전병유, 김해원. 2003년

2) 제도적 청년실업과 정책적 방안

현재 우리나라 청년실업자들은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각 기업체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어 인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것이지 결코 그들이 그들의 선배들에 비해 능력이나 실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이들에게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고 또 그들의 지식을 후배들에게 전수(傳授)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가 정책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본다.

이는 지금까지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기 위해 양산(量産)한 체육계 선수들의 취업을 위해 각급 학교에 체육부를 만들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했던 것처럼 각급 학교에 전문교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비단 상경계열 전공자만이 아닌 다른 계열 전공자들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나 이는 교육계와 행정부의 협조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

3) 청년실업자의 실무인재의 양성

청년실업자들은 대부분이 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인력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우수인력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인력수급계획에 따라서 조절이 되고 있는

실정에서 청년실업자를 바탕으로 한 인력수급 계획은 매우 효과적인 성과를 보
이게 될 것임에 자신한다.

또한 이러한 인력수급은 또 다른 보수(補修)교육을 통한 전문가 과정을 제공
해 줌으로써 청소년 경제교육 전문가로 양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문
가의 양성을 위해서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며, 자격증을 통한 인력수급을 제공하
는 새로운 직업을 개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새로
운 직업이 개발되게 된다면, 이에 관련된 상당한 취업자리가 마련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취업자리가 마련되려면 초등학교 공교육에서의 경제교육이 자리
매김 되어야 하겠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결국은 청
소년 경제교육에 대한 인프라 제공도 가능하게 됨으로서 상당한 사회적, 긍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3. 경제교육전문조직의 설립과 청소년경제교육전문가의 장기적 자립

이것은 청소년경제교육전문가의 자격을 확보하고, 경제교육 현장에 투입
된 인력과 새로이 교육을 받는 인력 등의 수급(需給)을 조절하고, 그들의
장기적인 이익과 평생직장으로서의 보장을 위해 ‘경제교육전문조직’을 설립
하고, 스스로의 경제적 활동을 통한 이익 창출과 조직 및 조직원의 경제적
자립(自立)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이 조직은 (1) 경제교육 시스템 조사 연구 (2) 경제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3) 경제전문 인력의 산(産)·학(學)·관(官) 연계 활동 강화 (4)경제
능력 평가·인증체계 개발 및 도입 (5) 경제교육 전문교사 양성 및 시범학
교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등의 일을 함으로써 자생적(自生的)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1) 경제교육 시스템 조사 연구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한국 경제교육 시스템의 현황분석 및 평가 자료를 갖춘 조직으로서의 위상 제고를 말한다. 이 조직은 향후 교육인적자원부 또는 교육청 산하의 평가 인증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 조직의 자료를 축적하며, 공교육을 이끌어 나가는 교장 및 담당 교사와의 유대를 통한 하의상달적(下意上達的) ‘공교육에서의 경제교육 필요’ 여론을 조성하여 청소년 경제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는데 있다. 이 조직에서는 국내 경제교육 시스템의 현황 분석을 하며, 대학 연구소 또는 교육청의 장학사 등에게 용역을 주는 방법으로 시스템의 현황 분석자료 축적한다. ‘경제교사 모임’ 구성 및 지원을 하며, 현재 구성돼 있는 ‘서울시 초등사회과교육연구회’ 등의 자생적 초등교사모임 중에서 경제에 관심이 있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경제교사모임’을 따로 구성하고 지원하여 초등경제교육의 필요성을 여론화하고, 이들의 경제교육에 대한 Feed-back을 통한 자료 축적한다.

‘경제교사모임’은 회원들의 해외연수 지원 등을 통한 각국 자료의 수집 및 축적으로 본 조직의 업계 최고 지위 확보를 우선으로 한다. 또한 조직의 이사진 중 학계인사(전현직 경제학 교수)들을 통해 초등경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보·분석 및 축적하며, 향후 해외 초등경제교육기관과의 자매결연 등을 통한 자료 수집 및 축적으로 초등 경제교육 시스템 기획 및 구축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시스템의 기대효과로는 아직 행정부에서도 가지지 못한 ‘초등 경제교육 시스템의 분석 및 현황파악 자료’의 축적으로 이는 향후 지향해야 할 경제교육 인증기관으로의 발전에 막대한 지적(知的)자산을 가진다.²⁰⁾ 공교육의 주축인 교장 및 교사와의 유대는 조직이 추구해야 할 사업의 상당한 인적(人的)자산으로 이것은 공교육 시장의 석권은 물론, 청소년 경제교육 시장에서의 본 조직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가장 큰 유무형(有無形)자산이 된다. 결국 이러한 경제교육에 대한 시스템 분석과 자료축적은 공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20) 초등경제교육연구소, 초등경제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한 심포지엄 자료, 대한민국 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비전과 정책제시 (2004. 11)

2) 경제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공교육 체계는 경제교육에 관한 커리큘럼 및 콘텐츠가 전무한 상태이다. 현재 사설 경제교육업체의 경우 외국 커리큘럼의 무분별한 도입, 여러 콘텐츠의 짜깁기적인 편집 등으로 인해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초등 경제교육의 현실에 부응하는 체계적인 경제교육 콘텐츠 및 커리큘럼의 개발은 꼭 필요한 일이다. 기존 경제교육 콘텐츠를 지피지기 백전백승(知彼知己 百戰百勝)의 마음으로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판매용 콘텐츠를 발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한 또는 타업체에서 구입한 콘텐츠를 CD, DVD, 부교재와 on-line용 교재 등으로 만들어 발간하고, 현재 각급 학교는 hard-ware의 수준은 최상급이나 거기에 따라가는 soft-ware가 없어 실제 수업에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을 감안하여 대량공급과 저가공급이라는 두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²¹⁾ 교육청의 예산으로 교재를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따라서 교재만큼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검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료로 발간되어야 한다. 공교육 시장의 경우 교사가 새로운 교재를 연구하고 강의하는 데 대해 상당히 귀찮아하고, 버거운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조직에서 유료로 교육시킨 경제교사를 각 학교에 파견하여 강의를 맡도록 함으로써 청년실업 해소책으로 이용되는 방안을 마련하여 청소년의 경제교육을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관련 경시대회를 주최하여 청소년들의 경제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경제경시대회는 초등학생의 시간적 여유와 초등학생이라는 교육학적인 중요성에 맞추어 실시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경제경시대회의 목적은 경제교육의 원활화와 어린이의 올바른 경제생활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이다.

21) 초등경제교육연구소 (2004.11), 초등경제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한 심포지엄 자료, 대한민국 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비전과 정책제시

3) 경제전문 인력의 산(産)·학(學)·관(官) 연계 활동 강화

경제의 특성상 책상 위에서만 하는 공부로는 체계적인 경제교육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놀이(Entertainment)와 체험(Experience)을 통한 교육(Education)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및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한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 그리고 학교의 연계를 통한 공조교육을 활용함으로써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게 되며, 경제교육전문가조직에서 이를 위한 활동을 함으로써 각 기관 간의 공고한 공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경제교육 포털사이트 운영으로 인하여 교육공조와 활용을 통하여 청소년의 경제교육을 활성화시키며, 각 청년실업자들의 전문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4) 청소년경제교육 자격증 개발 및 도입

교육인적자원부의 위탁을 받아 학생, 교사의 경제교육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다는 위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계에서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만 교육인적자원부의 위탁을 받아 공교육에서의 평가·인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으로 사교육적 위치에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러한 자격증 개발은 청년 교육자로서 전문인을 양성하는데 목표가 있으며, 더욱이 이러한 자격증 개발로 인하여 경제교육자를 양성하여 각 학교와 민간기관에 투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투입으로 기관과 학교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기관에서는 믿을 수 있는 경제교육자를 공급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경제교육을 지도하게 될 청소년교육지도자는 청년실업의 유희인력을 활용하여 경제능력 인증(자격증)을 통하여 활용할 수 있다. 청소년 경제

교육의 활성화에 대한 인증시스템은 청소년경제교육자에 대한 의식적이며 시스템적인 가증을 주기 위하여 각각의 교육자로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매우 공정해야하며, 실효성과 신뢰성을 얻을 수 있는 민간기관 및 정부기관에서 인증을 얻은 조직 기구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서 청소년경제교육자에 대한 자격과 연구 및 평가의 기준을 명확히 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제교육에 있어서의 효과에 대하여 공론화를 통한 청소년경제교육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지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 청소년경제교육자는 먼저 교육대상자인 청소년들을 대상별로 나누어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과 같은 학년별 교육시스템을 개발하여 교육주체인 청소년경제교육자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주체인 청소년경제교육자의 교육은 외부기관 정부와 민간단체, 대학교, 연구소와 같이 전문화된 자체 시스템을 가진 단체를 활용하기도 하며, 자체내부의 조직으로부터 개발한 교육 자료를 이용하여 교육을 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경제교육자에 대한 자체교육에 있어서 전문화된 조직을 만들어 내부적으로 경제교육에 대한 자료축적과 인터페이스를 강화하여 향후 변화하는 교육환경 개선과 청소년경제지도자에 양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향후 교육인적자원부의 위탁을 받은 평가·인증기관으로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경제지식 인증·평가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것을 간단히 현실에 적용하여 살펴본다면 생활경제교육 평가·인증 체계 개발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하여 구민회관 등에서의 강의 후 간단한 경제지식 콘테스트 등을 열어 기준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생활경제교육평가 1급’ 등의 인증서를 발행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EBS 등과 연계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퀴즈대회를 실시, 학기별 최우수자 등을 시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외부매체인 방송매체와 연계하여 주부대상 경제퀴즈대회 개최와 각 시·도별 대회를 갖으며, 다시 그들을 서울에 모아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침체되어 있는 청소년경제교육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키는 방안으로 모색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5) 경제교육 전문교사 양성 및 시범학교 운영

경제교육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학교단위의 체계적 경제교육 결과와 시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로 하고 있다. 이것의 목표는 경제교육 전문교사의 양성 및 파견으로 본 조직의 수익성 제고와 경제교육 시범학교의 운영으로 초등 경제교육의 필요성 확산이 주된 목적이다. 경제교육 전문교사 양성은 청년 취업난으로 인해 남아도는 경제전공 유휴인력을 재교육하여 경제교육의 현장에 투입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이것은 각 대학 경제 관련 학과장 및 교수의 추천을 받아 외부의 경제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하여 유료(有料)²²⁾ 재교육을 통하여 재교육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재교육을 받은 학생을 경제전문교사(Tutor)로 인증하고(조직의 인증서 발행), 각급 학교의 경제 특활반 등에 투입 할 수 있다.

청년실업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러한 방안들은 결과적으로 많은 경제관련 의식신장을 가져올 것이며, 이것은 민간단체와 정부기관의 도움을 받으며 더욱 청년실업률을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22) 유료(有料)란 수익자부담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인력공단, 여성부, 노동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시스템도 유료로 본다.

제 5 장. 디지털 시대의 매스미디어 적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제1절. 디지털 시대의 경제교육 및 활용

1. 디지털의 정의와 특징

디지털(digital)이란 손가락이란 뜻을 가지는 라틴어 디지트(digit)에서 유래하고 있다. 이처럼 간단해 보이는 '디지털'이란 말이 21세기에 살아남기 위한 첨단의 주문이 되고 있다. 대기업들은 앞을 다투어 아날로그를 달아버리고 '디지털' 대문을 달아놓는다.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캠코더, 디지털 텔레비전, 디지털 삼성, 디지털 LG등의 대기업은 기업대로, 상품은 상품대로 '디지털'을 놓치면 마치 21세기가 없는 것처럼 분주하게 움직인다. 접두사 '디지털'을 달아 놓으면 과연 다가올 새 세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 디지털이란 주문을 외지 않으면 다가오는 21세기에 망할 수밖에 없는가? 과거 아날로그 계의 제왕들은 디지털 세상의 맹주가 되기 위해 앞 다투어 뛰고 있다. 직장마다 정보화의 구호가 내 걸리고 디지털 깃발이 곳곳에 나부낀다. 세상이 온통 디지털로 휩싸이고 있는 느낌이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라고 이러한 디지털 추세를 못 본 체 할 수는 없다.

2. 디지털을 이용한 네트(Net)문화의 특징

1) 디지털문화의 특징과 의미

디지털로 복제된 원본들은 손오공이 컷털로 만든 분신처럼 사방으로 퍼져 나간다. 디지털로 만들어진 지적 생산물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²³⁾ 그래서 지적 생산물에 대해서는 혼자만 사용

23) Ward, S.(1974), "Consumer Socializ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하는 배타적 소유권이 무너진다. 디지털 혁명은 더 많은 사람이 더 싸고 더 쉽게 지적 생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 물론 이러한 복제와 변형이 쉽게 이루어짐에 따라 표절과 모작이 손쉽게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예술의 창작 주체를 넓힌다는 점에서 이러한 디지털 혁명은 엄청난 문화 혁명을 몰고 올 가능성을 엿보인다.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네트(Net)의 문화, 디지털 문화를 꽃피우려면 우선 우리 주변의 문화와 생활환경이 바뀌어야 한다. 현실의 문화가 정체되어 있는 데 어찌 새로운 디지털 문화를 바랄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네트에 의한, 네트를 위한, 네트의 문화'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 이러한 의문을 풀어내려면 무엇보다도 네트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만들어지는 새로운 네트(Net) 문화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첫째, 네트문화는 앞서 살펴 본 것처럼 공유와 나눔의 문화에서 출발한다. 네트 문화는 정보의 나눔을 자신의 존재 의미로 여기는 새로운 공동체 정신에서 출발한다. 둘째, 네트는 상명하달의 문화가 아닌 서로 주고받는 양방향의 문화이다. 셋째, 네트 문화는 참여와 협동을 토대로 사방으로 퍼져 나가는 연결의 문화이다. 여기에서는 혈연과 지연, 학연이라는 폐쇄적 연결망보다는 수평적인 연대에 토대를 둔 연결망이 중요하다. 네트의 공유 정신과 열린 자세는 폐쇄적인 연결망에 굴비처럼 엮여있는 기존 제도권에 대한 도전이다. 넷째, 디지털 문화는 비평하고 평가하기보다는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창조의 문화이다. 누구나 만들고 창조할 수 있는 문화가 바로 디지털 문화이다. 이들은 서로 경쟁하면서도 돕는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 다섯째, 디지털 문화는 순종의 문화가 아니라 잡종의 문화이다. 연결과 뻗이 아니라 나눔과 협동을 중시하는 디지털 문화는 언저리와 주변에 너그럽다.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발신하고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광장을 활짝 열어 놓은 것이다.²⁴⁾

24) Tennyson, R. D., Chao, J. N. & Youngers, J. (1981). Concept Learning Effectiveness Using Prototype and Skill Develop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3. 디지털 경제

현재는 지식기반 경제의 출현이다. 지식이 각 경제 주체 및 국민 경제 전체의 성과와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며, 지식의 창출, 확산, 습득, 활용 등을 위해 경제 주체들의 혁신 능력을 배양하고, 이러한 능력이 성장의 기반을 이루는 경제를 말한다. 세계 각국 정부는 국가의 경쟁력이 기술, 지식 등에 의해 결정되는 지식 기반 경제로의 이행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의 창출, 활용, 확산 등을 촉진하고, 사회의 혁신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국가 혁신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경우, 이와 같은 세계 경제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경제 성장 원천을 지식에서 찾는 국가 차원의 발전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지식과 정보가 새로운 부의 원천이 되는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는 인적 자본(human capital)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면서 그에 따른 계층 간의 경제적 격차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고학력, 고소득의 부모를 둔 자녀들은 가정에서의 교육 투자를 통하여 인적 자본을 여유 있게 획득하는 반면, 중산층 이하의 가정에서는 인적 자본에 투자할 여유가 부족하여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다. 또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경험하는 디지털 경제상황에 있어서 선택의 문제에 대한 내용을 강화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목표아래 합리적인 경제적 시민을 만드는 것이 경제교육의 목표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경제교육의 내용으로 삼아야 함은 당연하다. 또한, 디지털 경제시대에 있어서 경제교육에 대한 우리의 안일한 태도를 반성해야 한다. 경제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 부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은 이미 “미국의 교육정보화 정책”을 발표하고 “디지털 시대의 교육 목표”를 설정²⁵⁾하여 이에 대해서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 상황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변화하고 있는 사회와 경제에 적응하지 못하는 교육을 학생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다. 반성뿐만 아니라 지금이라도 다양한 관점에서의 논의가 필요로 하며 특히 정부의 정책적인

25) 박옥춘, “미국: 디지털 시대에 따른 5대 교육목표”, (2002 KERIS 심포지움, 2002년 11월) p.1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정부차원의 노력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교사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수업차원에서의 경제수업에서 위와 같은 디지털 경제에 대한 수업은 그나마 손쉽게 이뤄질 수 있다. 교사의 사회과 교육에 대한 의식적인 노력이 있다면 현 경제교과에서 사회경제의 인식에 있어 미진한 부분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

제2절. 청소년 경제교육과 매스미디어에 대한 활용

1. 매스미디어의 활용

현대사회에서 매스미디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없다. 그만큼 매스미디어는 현대인의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매스미디어는 현대인들에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의 전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며, 휴식과 오락의 수단을 제공해 준다. 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규범과 가치관을 심어주고, 특정한 태도와 행위를 창조하고 형성하는 사회화 도구로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매스미디어는 현대인들의 원만한 사회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²⁶⁾

이러한 매스미디어의 영향은 청소년에게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전통 사회에서는 가족이나 이웃이 청소년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나, 최근 일상생활에서 매스미디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매스미디어는 청소년의 행동과 가치관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 환경의 하나가 되었다.²⁷⁾ 매스미디어는 그 영향력이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과 의식형성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금의 청소년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매스미디어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그 기능과 효과에 대해서 분석

26) Belk, R.W.(1985), "Materialism: Trait Aspects of Living in the Material World",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7) Assael, H.(1985), *Consumer Behavior and Marketing Action*, 2nd Ed., Boston:Kent Publishing Company.

해보고 매스미디어가 청소년들의 의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으로 나누어서 알아보고 청소년이 매스미디어를 받아들이는 방법 중의 하나로 미디어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 미디어의 본질적 의미

미디어교육이란 미디어의 본질을 이해하는 교육인 Media Education이다. 미디어교육의 목표로 미디어를 창조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며 비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한다는 합의점에 도달해 있다고 많은 문헌에서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1990년에 프랑스의 툴루즈에서 있었던 BFI(British Film Institute)와 CLEMI (Centre de Liaison de L'Enseignement et des Moyenes d'Information)를 중심으로 한 "New Direction In Media Education"이라는 모임에서 각국의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논의를 가졌다. 다양한 종류의 교육과 마찬가지로 미디어교육의 이론과 정책을 공유하기는 어렵다. 미디어교육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확립될 수 있다는 다양성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모든 논문들이 주장하고 있는 놀라운 특징은 어린이와 젊은이들의 능력과 지식 및 풍부한 자원에 대한 일관된 신념일 것이다. 되풀이되는 주제는 부적절한 기존의 전통적인 교육과정으로부터의 해방, 미디어와 함께 하면서 자란 새로운 세대가 미디어를 통해 배운 것을 이용하고 표현하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디어교육의 기능은 미디어로부터 어린이를 방어하는 것도 아니고, 미디어 이용을 규제하거나 제한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강조해야 할 점은 미디어교육이 비판적이고 지적인 자유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²⁸⁾.

캐나다에서 40여 년간 미디어교육에 종사해온 가톨릭 신부 편젠트(John J. Pungente)도 미디어교육의 목적 열 가지를 제시하는데. 그의 주장은 미디어교육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제시해준다.

① 미디어교육은 감상력, 비판력, 식별력을 갖춘 수용자가 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28) Mckeage, K.K.R., M.L. Richins & K. Debevec(1993), "Self-Gifts and the Manifestation of Material Value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 ② 각종 대중매체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 ③ 대중매체의 정보제공기능과 오락제공기능이란 양면을 모두 이해시키는 것이다.
- ④ 현실의 실제세계와 대중매체에 의해 창조되는 미디어 세계의 본질 및 차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판단력을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다.
- ⑤ 대중매체 종사자들의 책임과 그들에 대한 정치, 경제, 조직, 기술, 사회, 문화적 통제요인에 대해서도 가르치는 것이다.
- ⑥ 여론 형성 또는 여론 조작에 미치는 대중매체의 영향력은 물론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수용자의 힘을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다.
- ⑦ 대중매체의 내용물을 미학적, 윤리적 기준에 의해서 관찰, 해석, 평가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
- ⑧ 지식전파, 문화전승, 규범형성 등과 같은 대중매체의 본래적 기능과 영향력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 ⑨ 대중매체의 내용에 대한 평가 및 선별 능력을 길러 실제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 ⑩ 대중매체를 이용해서 수용자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소유하도록 적극 유도하는 과정도 포함된다.

Len Mastermn도 자신의 논문 “The Media Education Revolution”에서 미디어교육의 필요성을 옹호하고 있다.

- ① 미디어의 높은 활용율과 그에 따른 미디어의 사회적 침투력
- ② 미디어의 이데올로기적 중요성과 양식 있는 산업으로서의 미디어 영향력
- ③ 정보 생산과 관리의 증가 및 미디어에 의한 정보의 전파력
- ④ 핵심적인 민주과정에서 미디어 영향력의 증가
- ⑤ 모든 부문에서 시각 커뮤니케이션과 정보의 중요성 증가
- ⑥ 미래의 요청에 부응하도록 학생을 교육시켜야 할 중요성

⑦ 정보를 사유화하고자 새로이 등장하는 국가적, 국제적 압력

이상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미디어교육은 아직도 나쁜 미디어의 폐해에서 수용자, 특히 어린이를 보호하는 차원의 보호주의적(protectionism) 측면이 강조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긍정적인 측면에서 미디어를 알고 잘 활용하기 위한 것이 미디어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2. 매스미디어와 청소년교육의 효과

매스미디어가 사회화의 기능을 발휘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매스미디어가 여러 계층의 사회구성원들을 위한 교육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매스미디어는 어린이, 청소년들 뿐 아니라 성인이나 노인층이 사회생활에 참여함에 있어 갖추어야 할 지식과 규범을 전달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특히 시각과 청각을 모두 동원할 수 있는 매스미디어는 교육적 효과가 뛰어난 매체로 인정받고 있다. 텔레비전의 다양한 교육용 프로그램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외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에게 매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1) 매스미디어와 오락기능

매스미디어의 오락기능은 딱딱하고 건조한 뉴스나 논평을 전달하기도 하지만 흥미위주의 내용이나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의 기분전환이나 휴식을 돕기도 한다.

(2) 매스미디어와 청소년들의 규범강화

문화적 규범연구는 매스미디어가 수용자 개인의 태도나 의견을 변화시키기 보다는 수용자가 속해 있는 사회나 집단의 문화적 규범을 강화하거나 형성함으로써 수용자의 인식과 행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전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매스미디어가 부정적이고 의도적인 반공선전

의 시각으로만 북한을 보도한다면 청소년들은 북한에 대해 나쁜 이미지를 가지게 되고 반복한적인 규범에 젖어들게 된다. 또한 수사 드라마나 범죄 뉴스의 보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이 범죄로부터 위협에 처해있다는 인식을 하게 한다. 서울대 위주의 입시관련 정보 등의 명문대위주의 대학입시관련 정보도 학생들로 하여금 명문대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명문대를 들어가야만 한다는 고정관념을 심화시킨다.²⁹⁾

이러한 매스미디어의 규범 강화 기능은 청소년들의 의식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잘못된 규범이나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새로운 규범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 드라마를 통해 남녀평등에 관한 의식을 환기시킨다면 청소년들의 성차별 규범이 약화되고 남녀평등의 규범이 확산될 수 있다.

(3) 매스미디어와 청소년의 폭력성 감소

매스미디어의 폭력에 대한 일반인들의 걱정과는 달리 텔레비전의 폭력이 시청자들이 이미 지니고 있던 스트레스와 좌절감을 정화(Catharsis)시켜 시청자들의 폭력적 성향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 연구는 평소에 좌절감에 빠져 언제라도 폭력적 행위를 저지를지도 모르는 청소년이라도 텔레비전이 제공하는 폭력장면에서 마치 자신이 폭력을 행사한 듯한 대리만족을 느끼고 좌절감을 해소한다면 폭력적 행위를 자제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TV 폭력물의 시청이 오히려 청소년의 폭력적 성향을 감소시킨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카타르시스에 입각한 이러한 설명을 충분한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4) 매스미디어와 청소년들의 비판의식.

매스미디어는 청소년들에게 논제를 설정(agenda-setting)해준다. 이는 매스미디어가 어떤 특정한 이슈들을 중요한 것으로 강조하여 부각시킬 경우

29) Richins, M.L. & S. Dawson(1990), "Measuring Material Values: A Preliminary Report of Scale Development",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수용자들도 그러한 이슈들을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효과를 말한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도록”(What to think) 하기 보다는 “무엇에 대해 생각할 것인가”(What to think about)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³⁰⁾ 이는 어떠한 사건에 대한 비판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³¹⁾. 이러한 현상에 대한 객관적 설정과 콘텐츠의 제공으로 각 단계에서의 청소년들의 비판적 의식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경제교육에 있어서 매스 미디어를 활용한다면 경제교육에 자료제공으로써 충분한 활용도를 제공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제3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교육

1. 웹 활용 교육(WBI) 정의와 내용

급속한 IT기술의 발달과 확산은 학교 교육에 종사하는 교육자들에게 많은 변화와 적응을 요구하고 있다. 전통적 교수학습에 기반을 둔 칠판 위주의 교실학습에서 벗어나 현대 첨단 정보통신교육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활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는 것이다. 웹 활용 교육(또는 웹 기반 교육, Web-Based Instruction: WBI)은 웹을 매체로 활용하여 원거리의 수요자에게 수업(혹은 교수)을 하는 혁신적인 접근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수업(instruction)은 의도한 특정의 학습 목표를 학습자가 달성하도록 촉진하는(facilitate) 정보 및 활동들의 전달”³²⁾이며, 매체란 이에 의하여 수업의 메시지가 의사소통 되는 물리적 수단이다. 웹 상에서의 수업을 설계하여 이것을 다시 실행하는 데에는, 수업을 설계 원칙(instructional design principle)들과

30) 이진희 (2001). 인터넷을 활용한 경제수업의 효과.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31) Sirgy, M.J.(1982), “Self-Concept in Consumer Behavior: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9, 287-298.

32) Smith & Ragan, 1993

관련하여 웹의 잠재력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주의 깊은 분석과 조사가 요구된다³³⁾. 과거 후진국들은 선진국의 학생들만이 사용가능한 잘 설계된 학습 자료들에 접근하는 것을 꿈꾸고는 했다. '70년대에, 우리가 이러한 자료들에 대해 선진국 학생들과 같이 동등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90년대에, 이것은 현실이 되었다. 지금, 우리는 원격 학습 및 교수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경제적이며 민주적인 매체 중의 하나인, 일반적으로 웹(WEB)으로 알려진, 월드 와이드 웹의 출현으로 축복을 받았다. 웹은, 학생들을 위해,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학습 경험들을 개발하는 기회를 제공했다.³⁴⁾

WBI(Web Based Instruction)란 바로 이러한 World Wide Web을 이용한 교수-학습 모형이다. 컴퓨터를 교수 수단으로 인터넷과 연결하여 세계 각국의 사이트에서 유용한 정보를 획득하여 교육에 이용하는 방법인 것이다. 오늘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가장 쉽고, 인기 있는 웹의 등장과 함께 인터넷은 중요한 교수 도구로서 교사들에게 인식되고 있으며, 웹을 이용한 새로운 교수모형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교사들에게 새로운 교수 학습 도구로 인식되고 있는 웹을 이용한 교수 학습 모형을 WBI(웹 활용 교육)라고 부르는데, 이는 특정한 그리고 미리 계획된 방법으로써 학습자의 지식이나 능력을 육성하기 위한 의도적인 상호작용을 웹을 통해 전달하는 활동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2. 초등 경제교육과 웹활용 교육(WBI)의 관련성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경제 문제는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보다는 공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하나의 경제 문제를 여러 명이 함께 경험한 바를 공유하면서 해결하여 개인이 말아야 할 인지적 부담의 정도를 덜어주고, 개인의 고정된 시각이나 관점이 다른 여러 사람

33) Ritchie & Hoffman, 1999

34) Alexander, 1995

의 관점과 시각에 노출됨으로써 경제 지식의 범주가 더욱 넓어질 수 있게 되고, 더욱 깊은 사고와 학습을 할 수 있는 자극이 된다.

경제교육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자기 주도적으로 경제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사고력이 필요하다. 특히 공적인 사회 현상에 관련된 합리적 의사결정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식을 인터넷 등을 활용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획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뱅크스(Banks)는 이러한 과학적 획득 방법을 “사회탐구”라는 용어로 불렀다. 사회탐구란 용어를 명료화하고 잠정적 가설을 세우며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모으고 평가하고 결론을 내리는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바람직한 시민을 양성해야 할 경제교육은 학습자가 어떠한 문제해결을 위해 탐구할 수 있는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경제교육에서 인터넷 등을 활용한 풍부한 자료의 제공은 필수라 하겠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교육은 자료 제시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기존의 전통적 자료였던 교과서는 학습자의 경제 탐구를 위한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화려한 영상 매체에 익숙해 있는 학습자들에게 교과서는 흥미 없는 읽을거리로 비취질 수 있다. 이러한 제한된 자료의 한계와 학습자의 지루함을 해결할 수 있는 자료 제시 형태가 웹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자료일 것이다. 웹기반 교육은 서버와 네트워크라는 매체를 통해 엄청난 양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그래픽, 이미지, 동영상, 애니메이션, 텍스트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체계적이며 실감나게 제시할 수 있다.³⁵⁾

웹을 이용해서 초등 경제교육을 해 나가면 다른 매체에 비해 여러 측면에서 유리하다. 첫째, 자신의 능력에 맞는 학습속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정보의 수준에 따라 자료를 선택할 수 있다.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학습은 컴퓨터와 학습자의 1대1 접촉을 통해 개별화 학습이 가능하다. 따라서 자신의 학습속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웹이 지니고 있는 방대한 경제 정보의 바다 속에서 자신의 수준에 맞는 경제 자료를 선택하여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

35) 박기범, 1999

둘째, 웹을 통하여 전달되는 경제 정보들의 역동성과 상호작용성을 들 수 있다. 즉, 일반 경제 서적이나 교과서를 통해서만 불가능했던 동영상, 음성자료들을 전달할 수 있으며, 일반 비디오테이프를 통한 자료보다 훨씬 더 상호작용성이 강하며, CD-ROM과 달리 전 세계 사이트들을 즉석에서 연결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정보를 토대로 학습자간의 또는 학습자와 시스템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협동학습, 주제토론학습 등의 다양한 경제 학습이 가능하다.

셋째, 웹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정보 DB가 된다는 점이다. 오늘날 인터넷은 가장 방대하고 가장 다양한 정보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웹기반 경제 학습을 설계할 때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웹 상의 관련 사이트들을 자신의 교수자료에 링크해서 통합시키는 일이 가능하다.

넷째, 웹의 우수한 특징 중의 하나는 최신의 경제 정보, 통계, 현상 등을 수시로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실시간으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웹이 제공하는 가상적 경제 실험은 학습자들에게 실제 형태의 실험 경험을 얻을 기회를 제공한다. 이것은 실험 교육의 융통성을 증가시키며, 원격 실험이라는 새로운 교실로 학습자들을 이끌 수 있다.

웹은 오늘날 사회과 경제 수업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교수-학습 환경을 창출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웹을 활용한 경제 수업은 학생들로 하여금 창의적이며 적극적인 학습 환경을 유도할 수 있고, 실제적이며 협동적인 학습 환경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러므로 웹을 기반으로 해서 초등 경제교육을 시키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겠다.³⁶⁾

36) 민병찬, 웹(Web) 기반 사회과 협동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석사학위 논문

제4절. 청소년 미디어 교육의 방향과 제언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미디어 교육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미디어 교육은 정부가 주도한 프로그램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정부로부터의 지원 역시 거의 없다. 미디어 교육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청소년 미디어 교육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미디어교육이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사실상 미디어가 중요 사회기구 역할을 수행하는 현대 사회에서 미디어의 언어체계를 학교교육을 통해 정식으로 교육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에서 청소년 미디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정규과목 독립유형, 기존과목 편입유형, 특별활동과목 유형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정규과목 독립유형이다. 이 유형은 초·중·고교 정규 교과목의 하나로 독립하여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는 유형으로써 짧게는 1학기용에서부터 길게는 전 학년 동안 연속된 교과로 편성될 수 있다. 가장 완벽하고 체계적인 미디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유형이지만 기존 교과목외에 새로운 교과로 독립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방법이다. 특히 입시 위주의 학교교육이 지배하는 우리나라의 교육 풍토 속에서는 미디어 교육과 같은 인성교육 또는 교양교육 성격의 교과가 독립교과로 편성되기는 여간 어렵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규 교과목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과 과정 개발과 교사 양성, 그리고 적절한 교재 개발 등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이 있다. 그러나 매스미디어의 역기능적 폐해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고 있는 상태에서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미디어교육이 실현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둘째, 기존과목 편입 유형이다. 이는 기존 초·중·고교 교과목 중 미디어 교육과 비교적 관련이 많은 교과목의 일부 단원이나 항목으로 편입하여

미디어교육을 실시하는 유형이다. 이 경우에는 전체 교과과정에 대한 손질이나 변형을 가하지 않고 부분적인 정책 결정만 가지고도 미디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수월성 면에서의 장점이 있다. 그리고 우선 1차단계로 기존 교과 중에 편입시켜 미디어 교육을 실시해 본 뒤 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독립교과목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단계적 추진 전략으로서의 유용성도 기대할 수 있다.

셋째로, 특별활동 과목유형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교육환경 및 정책 결정과정의 특성상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유형은 바로 특별활동의 하나로 미디어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이다. 특별활동으로 미디어교육이 실시될 경우에는 교사들의 전공과 현재 맡고 있는 과목의 종류에 관계없이 희망자를 중심으로 담당교사를 양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고 기본 교과목이나 교육정책과정상의 특별한 변화나 조치 없이도 실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형이다. 다만 교육의 효과 면에서 절실성이 떨어지는 선택형이라는 점이 단점이다.

이와 같은 세 가지 형태의 학교 미디어교육 유형들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채택,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에는 각 유형마다 개별적으로 채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각각의 장점과 특성을 검토하여 혼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결국 위의 세 가지 유형은 각기 배타적인 모델이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미디어교육 모델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매스미디어가 청소년에게 긍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으로는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에서 사회문화적 규범을 전함으로써 사회적응에 도움을 주고 청소년 교육의 도구로 이용이 되며, 흥미위주의 오락기능도 한다. 또한 청소년들의 규범강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사회 전반에 대한 비판적 능력을 강화시킨다. 이런 청소년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는 매스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바라보기로 미디어 교육이 있는데 긍정적인 면은 더 부각시키고 부정적인 면을 없애는 데 그 커다란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제 6 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경제교육을 효과적으로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었으며, 경제교육을 위한 학습자의 학습효과를 우선 고려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접근으로 초등학교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삼성경제연구소 중·고등학생의 선행연구조사를 참조하여 학교교육에서의 경제교육 문제점을 살펴 보았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연구의 목적에 따라 경제교육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하였다. 청년실업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 경제지도자의 양성과 청소년 경제교육 위한 디지털을 이용한 웹 활용 교육(WBI) 이었다.

첫째, 청년실업자의 활용이라는 측면으로 청소년경제교육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여야 한다.

청년실업자를 전문경제교육자로 육성하여 교육현장에 활용하는 방안이다. 현재 학교교육에서의 경제교육을 전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의 부재를 청년실업자를 바탕으로 전문경제교육자로 육성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의 청소년경제교육의 방안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청소년의 경제교육에 있어서 청소년경제교육자를 투입하게 될 경우에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인하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며, 이러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불안한 취업기회를 보다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주며, 교육적으로는 공교육에 있어서의 경제교육에 대한 빈약한 현 상황을 벗어나 보다 나은 청소년의 경제교육 환경을 도와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청소년경제교육자로서 청년실업의 활용은 높은 고학력을 이용한 질 높은 교육과 인재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또한 전문 자격증을 개발하여 청소년경제교육자가 사회에 진출하였을 때에도 사회적인 인식을 얻을 수 있게 되므로 보다 효과적인 경제교육지도자로서 역할을 돕게 될 것이다.

둘째, 청소년들의 환경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디지털 매스미디어를 경제교육의 도구로 활용하는 웹 활용 교육(WBI)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현재의 인터넷과 홈페이지 그리고 다양한 경제교육과 학교수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중·고등학생의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인터넷을 활용한 사업계획 습득의 경로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웹 활용 교육(WBI)은 정보의 공유와 정보의 축적, 정보의 다양성 확보를 통한 지역적 거리의 한계를 넘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정보를 서로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 혹은 청소년경제교육자의 경제교육 수업을 효과적으로 돕기 때문이다. 경제 교육 방식도 학생 스스로 컴퓨터, 인터넷, 정보통신 기술, 다양한 멀티미디어 매체를 통하여 학습자 개인의 수준별 학습을 자기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디지털 교육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서 어린이 경제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현직 교들에 대한 경제지식을 위하여 경제교육 연수가 확대되어야 한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어린이들이 경제교육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먼저 적절한 경제교육 관련 연수를 받아야 하고 충분한 경제 지식을 지녀야 한다. 학생들의 경제 지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교사의 훈련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잘 훈련된 교사들이 담당하는 교실의 학생들이 그렇지 못한 교사들이 담당하는 교실의 학생들보다 더 많은 경제 지식을 지닌다. 교사가 교실 수업의 핵심 열쇠이며, 교사의 연수가 학생들의 경제 지식이나 경제에 대한 태도형성에 가장 중요하고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초등경제교육이라는 경제교육 현장을 도외시한 경제적 이론 위주의 연수교육은 초등교사들의 경제학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하고, 경제는 어려운 학문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될 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 경제를 처음 접하는 어린이들에게도 경제학과 경제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경제 비전공자(非專攻者)인 교사들에 대한 경제 연수교육의 경우 경제학 강의가 아닌 수업 시간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교수법(teaching-method)에 관한 강의를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제교육은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재정적인 투자

재원이 필요하다.

이 세상에 경제교육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만능 경제교육 프로그램은 없다. 경제교육 프로그램 한두 개를 배우고 가르쳤다고 해서 경제교육이 모두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거나, 경제교육의 효과를 성급히 기대하는 조급증을 가져서는 안 된다. 경제교육 프로그램마다 가르치는 경제 개념이 다르고,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학년 또는 연령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단편적이거나 일시적인 경제교육이 아니라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경제교육을 추진해야 한다. 더욱이 경제교육에 대한 투자 성과는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실현되기도 한다. 교육은 신기술과 새로운 환경 변화를 받아들이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러한 신기술과 환경 변화가 가져다주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현대 경제에는 새롭고도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 경제 기구, 지불수단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경제교육은 우리들이 이것들을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와 선택의 폭을 확대시킬 수 있다.

셋째, 청소년 교육 중 경제교육은 우선되어야 한다.

앞으로 경제교육의 변화가 어느 정도로,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지는 알 수 없지만, 변화 속에서 청소년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경제교육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할 것이며, 이것은 경제교육을 수행하게 될 교육의 모체인 공교육 정상화를 도와 청소년경제교육자 양성과 디지털 경제교육의 활용으로서의 가치는 매우 높은 것이다.

별 첨(설문지)

[초등학생 설문]

『어린이 경제생활 설문지』

본 설문지는 어린이들의 용돈 사용과 소비생활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항목 하나만 콜라 번호에 V표를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솔직한 대답은 어린이 경제교육을 잘 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사용되오니 솔직한 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자 : 2005. 3. 어린이 동아일보 '쌍아경제동화' 연재 조영관(LG카드)

()초등학교 ()학년

1. 여러분은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어떤 방법으로 받습니까?
① 매일 ② 2-3일에 한번씩 ③ 일주일 단위로 ④ 한 달에 한번씩 ⑤ 필요할 때
2.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용돈을 받고 싶습니까?
① 매일 ② 2-3일에 한번씩 ③ 일주일 단위로 ④ 한 달에 한번씩 ⑤ 필요할 때
3. 여러분이 <문제 2번>에서 선택한 방법으로 용돈을 받고 싶은 까닭은 무엇입니까?
① 필요할 때마다 받아쓰는 것이 편리해서 ② 계획을 세워서 용돈을 쓰고 싶어서
4. 여러분은 부모님으로부터 한 달에 얼마정도의 용돈을 받습니까?
① 1만원 미만 ② 1만원-3만원 사이 ③ 3만원- 5만원 사이
④ 5만원-7만원 사이 ⑤ 7만원-10만원 사이 ⑥ 10만원 이상
5. 여러분이 현재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용돈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부족하다. ② 적당하다. ③ 많은 편이다.
6. 여러분은 한달 용돈으로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1만원 이하 ② 1만원-2만원 사이 ③ 2만원- 3만원 사이
④ 3만원-5만원 사이 ⑤ 5만원-7만원 사이 ⑥ 7만원 이상
7. 여러분은 한달 용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 2가지만 콜라 보세요.
① 군것질 ② PC방 ③ 선물 구입 ④ 학용품 구입 ⑤ 저축 ⑥ 도서 구입
⑦ 게임 CD 구입 ⑧ 장식품 구입(머리띠, 핀 등) ⑨ 기타

8. 용돈이 부족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 ① 부모님께 더 달라고 한다. ② 형제나 친구들에게 빌려 쓴다.
③ 부모님이 다음 용돈을 주실 때까지 기다린다.
④ 아르바이트를 한다. (예: 부모님 심부름, 전단 돌리기 등)
⑤ 기타 ()

9. 여러분은 꼭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 ① 용돈을 모아서 구입한다. ② 부모님께 사달라고 조른다.
③ 파소비이프로 참는다. ④ 열심히 공부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인다.
⑤ 부모님의 일을 도와 드리고 그 대가로 사달라고 한다.

10. 여러분은 한 달에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저축을 합니까?

- ① 전혀 못한다. ② 5천원 이하 ③ 5천원-1만원 사이
④ 1만원-2만원 사이 ⑤ 2만원 이상

11. 여러분이 현재 저축한 돈의 액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 ① 3만원 미만 ② 3만원~5만원 사이 ③ 5만원~10만원 사이
④ 10만원~20만원 사이 ⑤ 20만원~50만원 사이
⑥ 50만원~100만원 사이 ⑦ 100만원 이상 ⑧ 전혀 없다.

12. 여러분이 저축을 할 때 이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① 부모님께 맡긴다. ② 학교에서 만든 통장에 저금을 한다.
③ 저금통에 모은다. ④ 은행에 직접 가서 예금을 한다.

13. 여러분 이름으로 개설한 은행 통장은 몇 개나 됩니까?

- ① 없다.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이상

14. 여러분이 저축을 할 때는 어떤 목적으로 합니까?

- ① 사고 싶은 것을 사기 위해서. ②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재미있어서.
③ 어려운 때를 대비해서. ④ 모은 돈으로 언젠가 더 큰돈을 벌기 위해서

15. 여러분은 현재 용돈 기입장을 쓰고 있습니까?

- ① 쓴다. ② 쓰지 않는다.

16. 현재 여러분의 가정은 부자라고 생각하는지요?

- ① 부자라고 생각된다. ② 평범하다

③ 가난한 것 같다 ④ 잘 모르겠다

17. 여러분이 어른이 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 합니까?

① 부자가 될 수 있다. ② 현재 부모님과 비슷하게 될 것 같다

③ 부자가 되기는 힘들 것 같다 ④ 잘 모르겠다

18. 부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① 존경한다. ② 나도 부자가 되고 싶기 때문에 부럽다

③ 부자들이 웬지 싫다 ④ 잘 모르겠다

19. 집이나 학교에서 신용/경제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나요?

① 자주 접한다. ② 한두번 보고 들어왔다

③ 거의 없다 ④ 잘 모르겠다

20. 내가 만약 부자가 된다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지요?

①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 ② 남들이 보니까 도와줘야 한다

③ 내가 번 돈이기에 나와 내 가족만 사용하면 된다 ④ 잘 모르겠다

21. 어른이 되었을 때 부자가 될 수 있는 요건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자신의 소질을 열심히 계발한다.

② 어렸을 때부터 경제적인 소비 습관을 기른다.

③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책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 자주 접한다.

④ 항상 창의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 수고 하셨습니다

[교사 설문]

『서울시 초등사회과 교육연구회 선생님 설문지』

본 설문지는 초등 경제교육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학교에서의 경제교육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항목 하나만 골라 번호에 V표를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솔직한 대답은 어린이 경제교육을 잘 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 입니다.

조사자: 2005. 1. 초등경제교육연구소, 조영관(LG카드)

1. 초등학교의 경제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① 꼭 필요하다 ② 필요한 편이다 ③ 필요 없다
2. 학교의 시간 중 경제교육을 할 시간은 ?
① 특별활동 ② 재량학습 ③ 방과후 ④ 방학
3. 사회과 교과서에서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① 높은 편이다 ② 보통이다 ③ 낮은 편이다
4. 경제단원 교육을 하였을 때 문제점은?
① 교과서 내용이 부적절하다 ② 시간이 부족하다
③ 학습 자료가 부족하다 ④ 교육, 학습 방법을 잘 모른다.
5. 경제단원 교육 시 학습 자료의 양은 어떤가?
① 풍부한 편이다 ② 보통이다 ③ 부족한 편이다
6. 경제단원 교육시 효과적 자료로 사용되는 것은?
①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② 슬라이드 ③ 애니메이션 자료
④ 경제체험 교구재 ⑤ 신문 자료 ⑥ 게임 및 시뮬레이션
7. 경제단원의 효과적 자료의 양은 어떠한가?
① 풍부한 편이다 ② 보통이다 ③ 부족한 편이다
8. 경제와 관련된 연수를 받았던 경험은 있었는가?
① 자주 받는다 ② 몇 번 받았다 ③ 거의 받지 못했다
9. 경제교육 연수가 있다면 참여는 어떠한가?

① 적극 참여하겠다 ② 가능하면 참여하겠다 ③ 참여하지 않겠다

10. 경제교육 관련 연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① 이수학점 ② 커리큘럼 ③ 교육비 ④ 교육시간

11. 사회과 교사 모임에 참석하는 중 가장 관심이 있는 분야는?

① 경제 ② 정치 ③ 역사

12. 사회과 모임의 경제교육 활동에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단체는? (순서대로 기록요망)

① 경제단체(전경련, 중기협 등) ② 행정기관(서울시, 교육청 등)

③ 정치단체(국회, 서울시의회 등) ④ 연구단체(KDI, 삼성경제교육연구소 등)

⑤ 학술단체(한국 경제교육학회 등)

- 수고 하셨습니다

참 고 문 헌

1. 국내 문헌

- 강위철(2004), “경제교육” 국민경제연구소
- 교육인적자원부 (2001). 사회 4-2. 서울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_____ (2002). 사회 5-2. 서울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_____ (2001).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사회 4-2.
서울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_____ (2002).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사회 5-2.
서울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김금숙 (2002).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사회과 수업이 경제학습 효과.
석사학위 논문. 인천교육대학교.
- 김동혁 (2000). 초등 사회과 경제 교육에서의 개념 학습에 관한 비교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인천교육대학교.
- 김병구 외 (2000). 경제교육의 실태와 과제. 산업경제연구 제7집. 제1호
- 김선동, 전우천 (2000). 초등사회과 웹기반 협동학습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한국정보교육학회 5권 2호.
- 김영숙 (2004). 초등사회과 경제교육자료로서 어린이 신문의 적합성 분석,
서울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의태 (2003).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교과서 경제교육 내용분석. 한국교원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정원 (1999). WBI 교수·학습 자료의 유형에 따른 수업 방안 연구. 석사
학위 논문. 아주대학교.
- 김재원 (2003). 청소년 경제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경제교육 제12권 제
1호. KDI경제정보센터
- 김정호 (2002). 제7차 교육과정의 경제교육 목표와 내용체계. 경제교육연구
제8호. 한국경제교육학회

- 김진화 외 공저, 청소년 문제행동론, 학지사(2002)
- 민병찬 (2000). 웹(Web) 기반 사회과 협동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매일경제신문 2005년 1/21일자 매일경제 "청소년때부터 경제원리 익혀야"
- 류청산 (2000). SPSS와 교육연구. 서울 : 형설출판사.
- 삼성경제연구소 (2003) "중고생 경제인식 조사"
- _____ (2003) "고등학생 경제교과서의 분석"
- _____ (2004) "원원전략으로서의 사회공헌활동 현황과 시사점"
- 서정희·석봉화(1998), "청소년 소비자의 물질적 가치와 소비지향적 태도가 과시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6(3), 131-143.
- 연합뉴스 (2005년 1월 16일자 신문기사). 중. 고생 자본주의 인식
- 은예숙 (2002). 초등학생들의 경제 개념 인식과 추론의 발달. 석사학위 논문. 인천교육대학교.
- 이경숙, 권오성 (2001). 방과후 아동지도를 위한 학급 홈페이지의 설계 및 구현. 한국정보교육학회 6권 2호. 596-608
- 이영호, 이재인 (2002). 현명한 경제활동 능력 신장을 위한 ISES의 설계 및 구현. 한국정보교육학회 7권 2호. 242-249
- 이진희 (2001). 인터넷을 활용한 경제수업의 효과.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정문성 (1998). 사회과 협동학습구조에서의 의사결정모형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연구. 사회와 교육. 제26집. 108-206
- 정문성 외 (2002). 수업모형의 이론과 실제. 서울 : 학문출판.
- 조성민, 설문규 (2000). 웹학습 활동을 적용한 초등사회교과 콘텐츠 설계. 한국정보교육학회 5권 2호.
- 초등경제교육연구소(2004), 초등경제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한 심포지엄 자료, 대한민국 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비전과 정책제시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2002) 청소년 미디어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 한면희 (2001).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초한 사회과 교육. 서울:교육과학사.

- 한병남 (2001). 동화 자료를 활용한 사회과 수업이 경제 교육목표 성취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인천교육대학교.
- 한진수 (1999). 경인 지역 초등학생의 경제 지식.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논총. Vol. 16 127-146.
- 한춘희 외 (2004). “초등학생을 위한 생활경제 이야기1-나무의 경제” 서울: 중앙교육진흥연구소
- 한춘희 외 (2004). “초등학생을 위한 생활경제 이야기2-숲의 경제” 서울: 중앙교육진흥연구소
- 홍미화 (2003). “문제해결학습과 탐구학습의 도입수용기의 초등사회과 경제 교육내용의 변화양상”, “사회과교육”제42권 4호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 홍응표 (2003). “제7차 사회과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경제교육 내용의 계열성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 외국 문헌

- Assael, H.(1985), *Consumer Behavior and Marketing Action*, 2nd Ed., Boston; Kent Publishing Company.
- Belk, R.W.(1984), "Three Scales to Measure Constructs Related to Materialism: Reliability, Validity, and Relationships to Measures of Happines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1, 291-297.
- Belk, R.W.(1985), "Materialism: Trait Aspects of Living in the Material World",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2, 265-180.
- Bruce, J. & Weil, M. (1986). *Model of Teaching*. NJ : Prentice - hall.
- Engel, J.F., R.D. Blackwell & P.W. Miniard(1986), *Consumer Behavior*, 4th ed. New York : The Dryden Press.
- Friedman M.(1985), "Are American Becoming More Materialistic ? A Look at Change in Expressions of Materialism in the Popular Literature of the Post-World War II Era",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2, 385-387.
- Harris, J. (1995). Organizing and Facilitaing Telecollaborative Projects, *The computing Teacher*. 22.
- Laudon, D.L. & A.J. Dellabitta(1984), *Consumer Behavior: Conceot and Application*,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Inc.
- Mammen, S. & M. Whan(1987), "Family Consumer Conspicuous Consumption and Its Determinants", *American Council on Consumer Interests*, 33, 318.
- Mason, R.(1984), "Conspicuous Consumption: A Literature Review",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18(3), 26-39.
- Mckeage, K.K.R., M.L. Richins & K. Debevec(1993), "Self-Gifts and the Manifestation of Material Value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20, 359-364.

- Martorella, P. H. (1985). *Elementary Social Studies*. Boston : Little, Brown and Company.
- Richins, M.L. & S. Dawson(1990), "Measuring Material Values: A Preliminary Report of Scale Development",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7, 169-175.
- Richins, M.L. & S. Dawson(1992), "A Consumer Values Orientation for Materialism and Its Measurement: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9(3), 303-316.
- Yoho, R. F (1987). *Acquisition and Retention of Concepts and principle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in Riverside.

홈페이지

- "학교교육자료"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http://www.kfta.or.kr>)
- "초등경제교육 연구소"(<http://cafe.daum.net/econoi>)
- "기획비용". 그래프 도표 경제탐구(<http://www.taegunet.com/~social>).
- "속담경제". 어린이 경제신문(<http://www.econoi.co.kr>)
- "클릭경제교육" KDI (<http://click.kdi.re.kr>)
- "어린이 청소년경제교실" 한국은행(<http://youth.bok.or.kr>)
-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금융교실" 금융감독원 (<http://kids.fss.or.kr>)
- "어린이경제교실". 재정경제부(<http://www.mofe.go.kr/child/index.htm>)
- "청소년 경제교육" JA KOREA (<http://www.jakorea.co.kr>)
- "에듀넷 멀티미디어 교육자료". 에듀넷(<http://mi.edunet4u.net/>)
- "수업자료". 티나라(<http://www.tnara.net/>)
- "우수 직업인 성공담". 노동부(<http://kids.molab.go.kr/>)
- "초등경제교육",한진수와 함께하는 경제이야기
(<http://www.inue.ac.kr/~jshahn/>)

Abstract

A study on the direction and an improvement plan of the youth economics education in the Digital Age

Cho Young Kwan
Major in Digital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Dept. of Digital Small and Medium
Business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Digital Small and Medium Business
Hansung University

This article has been written for the purpose of finding more efficient and fruitful ways of economics education to the youth in Korea.

Korea society needs to develop the root for its youth to be global tailor made leaders, and it is clear that one of the essential factors to be the leaders is strong back ground of economics education and well organized economic mind.

So, it researches efficient tools and system for how to educate economics to the youth in Korea.

This article looks over the real status of economics education in the

school class room from elementary school to high school, and more focuses on the direction and active method of efficient economics education, particularly with the tools of digital multimedia.

The research suggests the followings as the final outcome.

One, Who teach them? – Producing Experts

First suggestion is to produce teaching experts of economics education for youth. In here, we can combine two very important issues in this society of unemployment of post graduation youth and need of efficient economics education.

So if the people would be well educated and issued a certificate, and put into the economics class room, the unemployment issue will be solved by economics education certificate system.

Two, How teach them? – Use of WBI with multimedia tool

Most efficient education contents are taught by visually and touchily (TV, Internet, News Papers, Books, Games, etc). Particularly internet has dominated many education tools in classroom. And use of WBI would be able to let people share information easily, and I believe it can help the economics education classroom to achieve more fruitful outcome.